

<http://kostat.go.kr>

<b>보도자료</b>	2011. 3. 23(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1. 3. 22(화) 10:00
	담당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과 장 : 강 창 익 (042.481.3720) 서기관 : 김 형 석 (042.481.3742)

##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연구책임자 김두섭 한양대 교수)이 북한 인구센서스(1993, 2008) 등 국내외 북한 인구 통계를 수집하여 공동 연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의 기발표 자료 및 내부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일러두기

### 1.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사업”에 대하여

가. 이 연구는 2010년(2011년 일부 보완)에 통계청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으로 북한 인구 및 인구센서스에 대해 연구한 사업이며,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책임자: 김두섭(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양대 사회학과)

\* 공동연구원: Minja Kim Choe(East-West Center, 미국), 전광희(충남대 사회학과),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종합연구센터), 김형석(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나. 자료 분석 대상은 주로 2008년에 실시된 제2차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993년에 실시된 제1차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는 물론 북한 중앙통계국, UN,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개별 학자의 연구 결과도 함께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은 북한 인구의 규모와 구조적인 특징, 인구성장 추세와 인구변천과정, 출생, 사망, 혼인상태, 경제활동, 보건 및 건강상태, 교육, 인구분포, 도시화, 인구이동, 장래인구추계, 가구와 주택, 그리고 북한의 인구정책에 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연구결과는 단행본으로 편집하여,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라는 제호로 2011년 4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2. 이 보도자료는 대부분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사업”의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통계청에서 기발표(2010.11.23.)한 “1993~2055 북한인구추계”이외의 다른 내부 연구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보도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통계표에 수록된 수치는 추정 및 반올림 등으로 총수와 내역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목 차 >

□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요약) .....	i
I. 북한의 인구 .....	1
1. 인구 규모(1946~2010) .....	1
2. 인구의 연령별 구조(2008) .....	4
3. 교육정도별 인구(1993, 2008) .....	7
4. 혼인상태별 인구(1993, 2008) .....	14
5. 출산력(1993, 2008) .....	17
6. 사망력(1993, 2008) .....	18
7. 경제활동(1993, 2008) .....	22
8. 보건 및 건강상태(2008) .....	28
9. 인구분포, 도시화, 인구이동(1925~2008) .....	30
II. 북한의 가구 및 주택 .....	43
1. 가구 유형(2008) .....	43
2. 가구원 수(2008) .....	43
3. 가구주율(2008) .....	44
4. 주택의 형태(2008) .....	47
5. 주거용 연면적(2008) .....	49
6. 방 수(2008) .....	51
7. 수도형태(2008) .....	52
8. 화장실(2008) .....	53
9. 난방형태(2008) .....	55
10. 취사연료(2008) .....	56
<자료출처> .....	58
<부록> .....	59
참고 1. 북한 2008년 인구일제조사(인구센서스) 개요 .....	59
참고 2. 북한의 인구정책과 출산율 .....	60
참고 3. 북한의 행정구역(2008. 10. 1. 현재) .....	63
참고 4. 북한의 교육제도 .....	64



#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요약)

## I. 북한의 인구(1~42쪽)

- 북한 인구는 1944년 1,004만명이었으며, 1953년 850만명까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419만명으로 추정(1쪽)
- 고난의 행군기(1996~2000)에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율은 급감했지만 가임여성 인구가 많아 출생아수(5년간 총 198만명)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5쪽)
- 2008년 5세이상 인구(2,234만명) 중 24.1%(539만명)가 각급 학교에 재학 중(7쪽)
  - 유치원 취학연령인 5세의 취학률은 88%이며, 이후 소학교, 중학교는 거의 100% 수준
  - 고등교육기관(직업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이상) 졸업 인구는 전체의 16.3%
- 2008년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는 29.0세, 여자는 25.5세로 나타남(15쪽)
  - 70년대 후반부터 만혼 권장, 교육 수준의 상승, 20대 남자들의 오랜 군복무, 20세 전후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초혼연령이 높음
  -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0.7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합계출산율은 2.0으로 1993년 2.13에 비해 0.13 감소(17쪽)
  - 도농별로는 농촌 2.18, 도시 1.89, 시도별로는 평안북도 2.05, 평양 1.92, 학력별로는 소학교 2.05, 대학 1.93, 직업별은 농장원 2.16, 사무원 1.92
-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식량난이 계속 악화되면서 기대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식량난이 절정(1997~98)에 달한 1998년에 가장 낮은 수준(18쪽)

- 남자는 '93년 67.0세에서 '98년 59.5세, 여자는 '93년 74.1세에서 '98년 66.4세로 각각 감소
  -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8년에도 남자가 64.1세, 여자가 71.0세로 1990년대 초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연령별 사망확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고령층(특히 남자 60세 이후, 여자 75세 이후)에서 사망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독특한 패턴(20쪽)
- 이는 어렸을 때의 높은 결핵 유병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년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2%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219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18만명임(22쪽)
- 고난의 행군기(1996~2000) 직전인 1993년(76.0%)에 비해 5.8%p 감소
  -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미약하나마 남한처럼 'M'자형 패턴이 관찰됨
  - 60세이상 고령자의 경활 참가율은 7.3%로 한국보다 일찍 노동시장을 이탈
  - 경활 참가율은 평안북도가 72.0%로 가장 높고, 평양이 67.7%로 가장 낮음
- 산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 36.0%(439만명), 제조업 23.7%(288만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0.3%(247만명)의 순으로 나타남(24쪽)
- 평양시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33.8%), 자강도는 제조업(32.2%), 평안남도는 광업(12.0%), 황해남도는 농림어업(58.1%)의 비중이 높음
  - 취업자 성비는 건설업(350)이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0)이 가장 낮음
- 직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 숙련직 34.8%(425만명), 기능원 17.4% (212만명), 기계조작·조립원 14.3%(174만명)의 순임(26쪽)
- 16세 이상 인구 중 텃밭 가꾸기, 가축사육 등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구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는 27.9%, 여자는 32.8%임(27쪽)

- 유형별로는 텃밭 가꾸기(31.5%), 가축사육(26.0%), 딸감구하기(21.1%) 순이며, 주당 평균 종사시간은 1.97시간임
- 시각, 청각, 보행, 기억력 등에서의 장애출현율은 여자가 남자 보다 높음(28쪽)
- 인구분포를 보면, 2008. 10월 현재 평안남도(405만명)가 전체 인구의 1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양시(326만명)임(31쪽)
  - \* 2010년 평양 남쪽 일부(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가 황해북도로 조정
- 2008년 북한의 도시화율은 60.6%(32쪽)
  - 북한의 도시인구는 1953년에 15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에는 438만명, 1980년 984만명, 2008년에는 1,416만명으로 대폭 증가
  -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 비중도 1953년 17.7%에서 1960년 40.6%, 1980년 56.9%, 2008년에는 60.6%로 증가
- 북한의 2008년 센서스 자료와 남한의 2005년 센서스 자료로 인구이동을 비교하면, 남한이 10배 정도 빈번하게 인구이동(36쪽)
  - 74.5만명(남자 31.9만명, 여자 42.7만명)이 지난 5년 동안 시군 경계를 넘어서 이동(총인구의 3.5%) : 남한은 2005년 현재 이동자가 총인구의 33.1%
  - 시도 간 인구이동자 24.1만명의 이동목적지는 평양 27.6%, 평안남도 19.6%의 순
-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현거주지 주소가 공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35.2만명(전체의 1.6%)임(42쪽)

## II. 북한의 가구 및 주택(43~58쪽)

- 2008년 북한의 일반가구 수는 589만 가구로 1993년(480만 가구)보다 109만 가구가 증가(43쪽)
- 가구의 유형은 핵가족가구 31.5%, 확대가족가구 66.3%, 기타가구 2.2%(43쪽)
  - 평양의 핵가족가구 비율은 36.9%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28.8%), 함경북도(29.1%), 평안남도(29.6%)는 낮았음

- 2008년 북한의 일반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3.93명이었으며, 지역별로 별 다른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43쪽)
- 2008년 북한의 성별 가구주율은 남자가 48.9%, 여자는 3.9%임(44쪽)
  - 연령별로 보면, 남자는 40-44세에서 97.5%로 정점에 있게 되며, 여자는 50-54세에서 9.4%로 정점
  - 여자의 가구주율은 남한보다 모든 연령에서 낮은 가운데, 50대 초반에 피크를 갖는 일봉(一峰) 패턴을 보임
- 2008년 전체가구의 43.9%인 2,584천 가구가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농촌 지역은 단독주택에 59.4%, 도시지역은 연립주택에 49.5%가 거주(48쪽)
  - 단독주택은 황해북도, 연립주택은 평안남도, 아파트는 평양시가 높은 비율
- 75㎡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90.5%(5,324,765 가구)의 가구가 거주함(49쪽)
- 방 2개 주택에 64.7% 가구가 거주하며, 방 1개인 가구의 비율은 도시가 농촌의 2배임(51쪽)
- 2008년 주택 내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85%인데, 도시 지역(89.5%)이 농촌 지역(78.0%)보다 11.5%p 높게 나타남(52쪽)
- 전체 가구의 58.3%는 수세식 단독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 66.3%로 농촌(45.9%)보다 20.4%p 높게 나타남(53쪽)
- 주된 난방연료는 석탄(47.1%)과 나무(45.1%)이며, 도시지역은 석탄(64.3%), 농촌지역은 나무(75.3%)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55쪽)
  - 전기난방을 하는 가구는 0.7%로 매우 낮으며, 중앙 및 지역난방은 평양시(32.2%)를 제외하면 거의 이용되지 않음
- 난방연료와 유사하게 취사연료도 석탄(46.1%)과 나무(46.9%)를 주로 사용하며, 평양시만 가스와 석유를 10%대 사용(56쪽)

## [남북한 주요 인구통계 지표 비교]

주요지표	남한(A)	북한(B)	비교 (남한기준)	비고
<b>&lt;인구 부문&gt;</b>		<b>* (B/A) 또는 (B-A)</b>		
• 총인구 수 <sup>a),d)</sup> (만명)	4,888 ('10)	2,419 ('10)	49.5%*	* (B/A)
• 인구 증가율 <sup>a),d)</sup> (%)	0.3 ('10)	0.5 ('10)	0.2%p	
• 인구밀도 <sup>a),d)</sup> (명/km <sup>2</sup> )	490 ('10)	196 ('10)	-294	
• 인구정점 <sup>a),d)</sup> (만명)	4,934 ('18)	2,654 ('37)	19년	
• 성비 <sup>a),d)</sup> (여자 100명당)	100.8 ('10)	95.1 ('10)	-5.7	
• 중위연령 <sup>a),d)</sup> (세)	38.0 ('10)	31.9 ('10)	-6.1세	
• 구성비:<15세 <sup>a),d)</sup> (%)	16.2 ('10)	22.4 ('10)	6.2%p	
15-64세 <sup>a),d)</sup> (%)	72.9 ('10)	68.6 ('10)	-4.3%p	
65세이상 <sup>a),d)</sup> (%)	11.0 ('10)	9.0 ('10)	-2.0%p	
• 총부양비 <sup>a),d)</sup> (100명당)	37.2 ('10)	45.9 ('10)	8.7	
• 기대수명(남자) <sup>b)</sup> (세)	76.5 ('08)	64.1 ('08)	-12.4세	
(여자) <sup>b)</sup> (세)	83.3 ('08)	71.0 ('08)	-12.3세	
• 합계출산율 <sup>b)</sup>	1.2 ('08)	2.0 ('08)	0.8	
• 재학인구 비율 <sup>c)</sup> (%)	24.7 ('05)	24.1 ('08)	-0.6%p	남6세이상, 북5세이상
• 고등교육 졸업비율 <sup>c)</sup> (%)	34.3 ('05)	16.3* ('08)	-18.0%p	* 직업기술, 전문학교 포함
• 초혼연령 (남자) <sup>c)</sup> (세)	32.1 ('05)	29.0 ('08)	-3.1세	
(여자) <sup>c)</sup> (세)	28.9 ('05)	25.5 ('08)	-3.4세	
• 산업별 취업자 <sup>c)</sup> (%)	('05)	('08)		
(농림어업) <sup>c)</sup>	6.0	36.0	30.0%p	
(광공업) <sup>c)</sup>	16.8	29.6	12.8%p	
(서비스업) <sup>c)</sup>	77.2	34.4	-42.8%p	
• 인구이동율 <sup>c)</sup> (%)	33.1 ('05)	3.5 ('08)	-29.6%p	지난 5년간 균경계 기준
• 도시화율 <sup>c)</sup> (%)	81.5 ('05)	60.6 ('08)	-20.9%p	
• 수도 인구 <sup>c)</sup> (%)	20.8 ('05)	13.9 ('08)	-6.9%p	서울 및 평양 인구
<b>&lt;가구 및 주택 부문&gt;</b>		<b>* (B/A) 또는 (B-A)</b>		
• 총가구 수 <sup>c)</sup> (천 가구)	17,334 ('10)	5,887 ('08)	34.0%*	* (B/A), 남한은 잠정
• 1인가구 비율 <sup>c)</sup> (%)	23.3 ('10)	1.7 ('08)	-21.6%p	남한은 잠정
• 핵가족 비율 <sup>c)</sup> (%)	65.0 ('05)	31.5 ('08)	-33.5%p	
• 평균 가구원 수 <sup>c)</sup> (명)	2.88 ('05)	3.93 ('08)	1.05명	
• 가구주율(남자) <sup>c)</sup> (%)	52.9 ('05)	48.9 ('08)	-4.0%p	
(여자) <sup>c)</sup> (%)	14.8 ('05)	3.9 ('08)	-10.9%p	
• 주택형태(단독) <sup>c)</sup> (%)	27.9 ('10)	33.8 ('08)	5.9%p	남한은 잠정
(연립) <sup>c)</sup> (%)	12.7 ('10)	43.9 ('08)	31.2%p	
(아파트) <sup>c)</sup> (%)	58.3 ('10)	21.4 ('08)	-36.9%p	
(기타) <sup>c)</sup> (%)	1.2 ('10)	0.9 ('08)	-0.3%p	
• 방 수 (1개) <sup>c)</sup> (%)	14.3 ('05)	17.2 ('08)	2.9%p	
(2개) <sup>c)</sup> (%)	30.4 ('05)	64.7 ('08)	34.3%p	
(3개) <sup>c)</sup> (%)	47.0 ('05)	17.0 ('08)	-30.0%p	
(4개이상) <sup>c)</sup> (%)	8.3 ('05)	1.1 ('08)	-7.2%p	
• 수세식 화장실 <sup>c)</sup> (%)	94.0 ('05)	59.4 ('08)	-34.6%p	

주: a) 남한, 북한 모두 추계인구(통계청), b)남한은 인구동태통계(통계청), 북한은 인구센서스, c)남한, 북한 모두 인구센서스, d) 북한 인구추계 결과(통계청, 2010b)이며 보도자료 본문에는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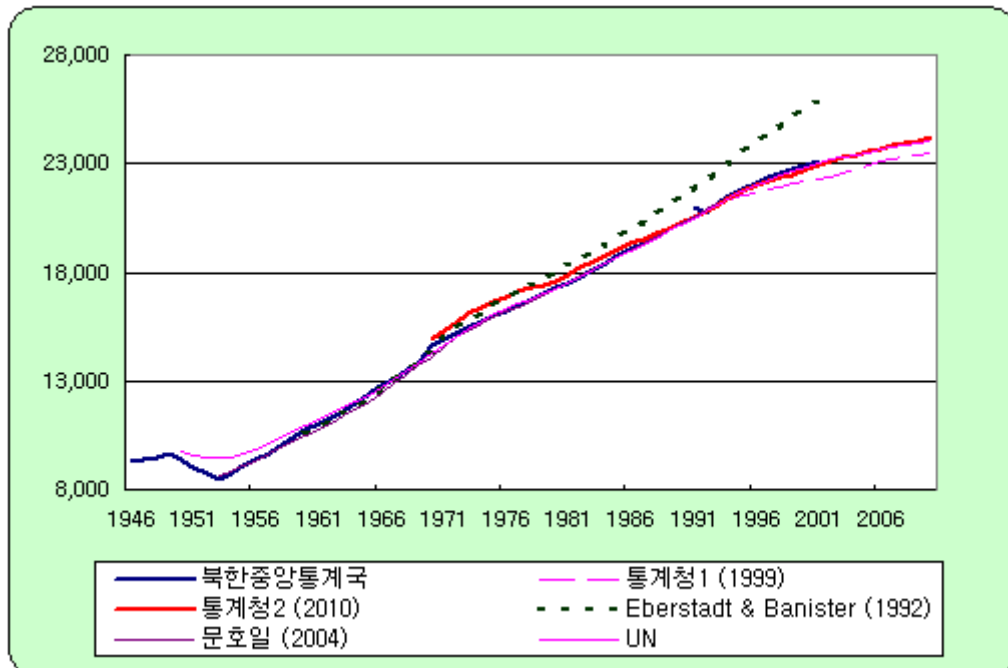
# I. 북한의 인구

## 1. 인구 규모(194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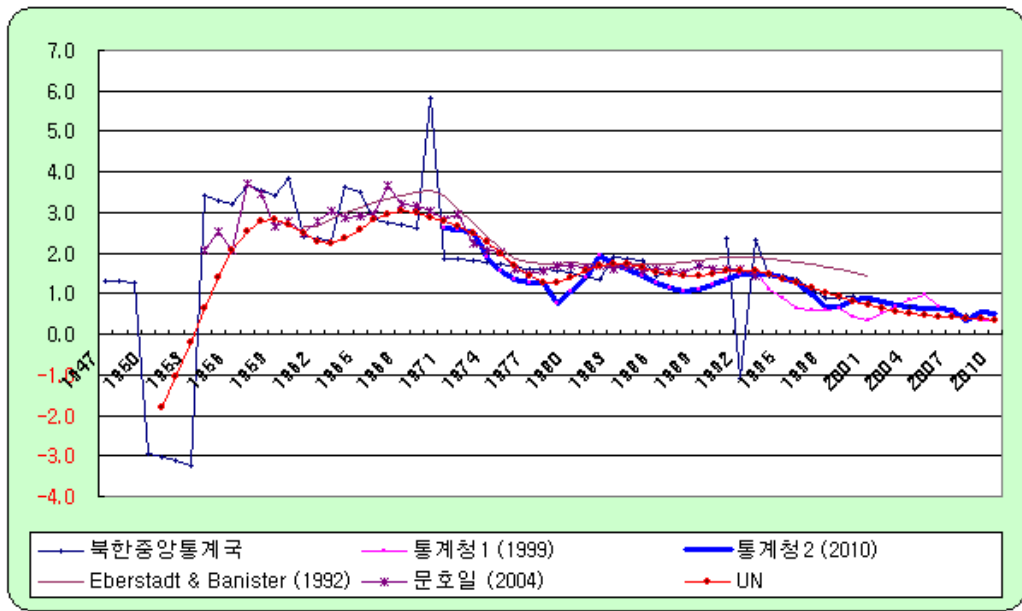
북한 인구는 1944년 1,004만명이었으며, 1953년 850만명까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419만명으로 추정

- 1944.5.1일 현재 1,003.9만명으로 추정(미군정 자료)되던 북한 인구는 1946년에 925.7만명으로 감소
  - 1946~57년은 월남 및 한국전쟁으로 인구 손실이 생겨 900만명 수준
  - 1961~70년은 2~3%대의 높은 인구성장률로 1970년에는 1,400만명 수준
  - 1979~82년 1,700만명, 1985~89년 1,900만명, 1990~92년은 2,000만명 수준
  - 1999~2005년은 연간 0.8% 인구증가로 2,200만명 수준이었으며, 2010년은 2,419만명으로 추정(통계청, 2010)

<그림 1> 북한의 인구 추이: 1946-2010년



<그림 2> 북한의 인구성장률 추이: 1946-2010년



<표 1> 북한의 공표인구와 추계인구: 1946-2010년

(천명)

	북한 중앙통계국	통계청1 (1999)	통계청2 (2010)	Eberstadt & Banister (1992)	문호일 (2004)	UN (2008)
1946	9,257					
1947	9,379					
1948	9,500					
1949	9,622					
1950	9,339					9,737
1951	9,057					9,559
1952	8,774					9,458
1953	8,491				8,685	9,438
1954	8,780				8,863	9,498
1955	9,070				9,088	9,632
1956	9,359				9,276	9,831
1957	9,703				9,621	10,081
1958	10,048				9,953	10,363
1959	10,392				10,218	10,657
1960	10,789			10,568	10,502	10,946
1961	11,049			10,850	10,762	11,220
1962	11,308			11,140	11,063	11,478
1963	11,568			11,457	11,401	11,735
1964	11,988			11,802	11,727	12,012
1965	12,408			12,172	12,067	12,323
1966	12,760			12,565	12,424	12,672
1967	13,112			12,983	12,879	13,048
1968	13,465			13,424	13,294	13,444
1969	13,817			13,892	13,712	13,847

1970	14,619	14,905	14,905	14,387	14,129	14,247
1971	14,892	15,292	15,292	14,881	14,530	14,643
1972	15,166	15,683	15,683	15,338	14,959	15,035
1973	15,439	16,080	16,080	15,759	15,293	15,411
1974	15,713	16,388	16,388	16,140	15,612	15,760
1975	15,986	16,646	16,646	16,480	15,927	16,072
1976	16,248	16,871	16,871	16,788	16,186	16,341
1977	16,511	17,083	17,083	17,084	16,422	16,573
1978	16,773	17,303	17,303	17,379	16,679	16,784
1979	17,036	17,434	17,434	17,682	16,963	17,000
1980	17,298	17,622	17,622	17,999	17,252	17,239
1981	17,536	17,866	17,866	18,314	17,537	17,508
1982	17,774	18,214	18,214	18,623	17,832	17,802
1983	18,113	18,528	18,528	18,941	18,116	18,111
1984	18,453	18,828	18,828	19,267	18,421	18,421
1985	18,792	19,097	19,097	19,602	18,711	18,721
1986	19,060	19,339	19,339	19,944	19,008	19,008
1987	19,346	19,559	19,559	20,292	19,305	19,286
1988		19,762	19,762	20,650	19,599	19,562
1989	20,000	19,977	19,977	21,023	19,927	19,846
1990		20,221	20,221	21,412	20,251	20,143
1991	20,960	20,495	20,495	21,815	20,576	20,457
1992	20,730	20,798	20,798	22,227	20,909	20,781
1993	21,213	21,123	21,103	22,646	21,213	21,108
1994	21,514	21,353	21,412	23,067		21,423
1995	21,819	21,543	21,715	23,487		21,717
1996	22,114	21,684	21,991	23,904		21,989
1997	22,355	21,810	22,208	24,317		22,238
1998	22,555	21,942	22,355	24,721		22,465
1999	22,754	22,082	22,507	25,114		22,672
2000	22,963	22,175	22,702	25,491		22,859
2001	23,149	22,253	22,902	25,853		23,025
2002		22,369	23,088			23,172
2003		22,522	23,254			23,302
2004	23,612	22,709	23,411			23,420
2005		22,928	23,561			23,529
2006		23,079	23,707			23,632
2007		23,200	23,849			23,728
2008	24,052	23,298	23,934			23,819
2009		23,380	24,062			23,906
2010		23,455	24,187			23,991

주 1) 북한 중앙통계국의 공표인구는 연말인구이며, 남한의 통계청(1, 2)과 Eberstadt and Banister(1992), 문호일(2004), UN(2008)의 추계인구는 연앙인구임.

자료 Eberstadt and Banister(1992); 통계청(1999, 2010b); 조선중앙통신사(각년); 문호일(2004), UN(2008).

## 2. 인구의 연령별 구조(2008)

한국전쟁(1950~53년) 중 태어난 인구는 71만명으로 남한(203만명)의 35%

- 북한은 사회 변화에 따른 성 및 연령별 인구변화가 비교적 인구구조에 뚜렷하게 남아 있음
  - 전후 베이비붐의 형성이나 에코 효과(echo effect)로 나타나는 제2차 베이비붐의 형성도 남한 보다 잘 나타남
  - 이는 국제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사회인데다가 출산력 변천(fertility transition)이 1970년대 단기간에 걸쳐 일찍 마무리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 남한은 출산력 변천이 1960~198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데다가, 60년대 초반 인구 급증과 60년대 중반 이후 출산력의 급감 및 가임여성 감소(1945년 전후 생)로 인구 구조상 깊은 골짜기가 생겼고, 다시 8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에코 현상으로 인한 골짜기가 나타나 북한과 다소 다른 모양을 갖게 됨
    - \* 만약 남한의 인구 피라미드(6쪽)에서 60년대 중반 이후 출산력의 급감 및 가임여성 감소가 없어 “③번“과 ”⑤번“ 사이의 골짜기가 생기지 않았다면, “⑧번” 골짜기도 생기지 않아 북한 인구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을 것임
- 한국전쟁(1950~53년) 중 태어난 인구는 71만명으로 남한(203만명)의 35%로 나타남
- 북한에서 전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인구는 700만명으로 추정
  - \* 북한(인구연구소)에서는 전후 베이비붐을 1954~1973년으로 간주
  - \* 남한에서는 보통 1955~1963년을 베이비붐으로 보지만, 일부에서는 1964~66년에도 비록 출생아는 줄었지만 90만명 수준이었으며, 이후 1971년에 103만명으로 피크에 도달했기 때문에 베이비붐 기간을 1974년까지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동일 연령대(1954~1973년생)의 남한 인구(1,627만명)와 비교시 43% 수준
  - 남한 기준의 베이비붐에 해당하는 1955~1963년생은 260만명으로 남한(716만명)의 36% 규모

○ 고난의 행군기(1996~2000)에 태어난 인구는 모두 198만명이었는데, 이 기간 중 매년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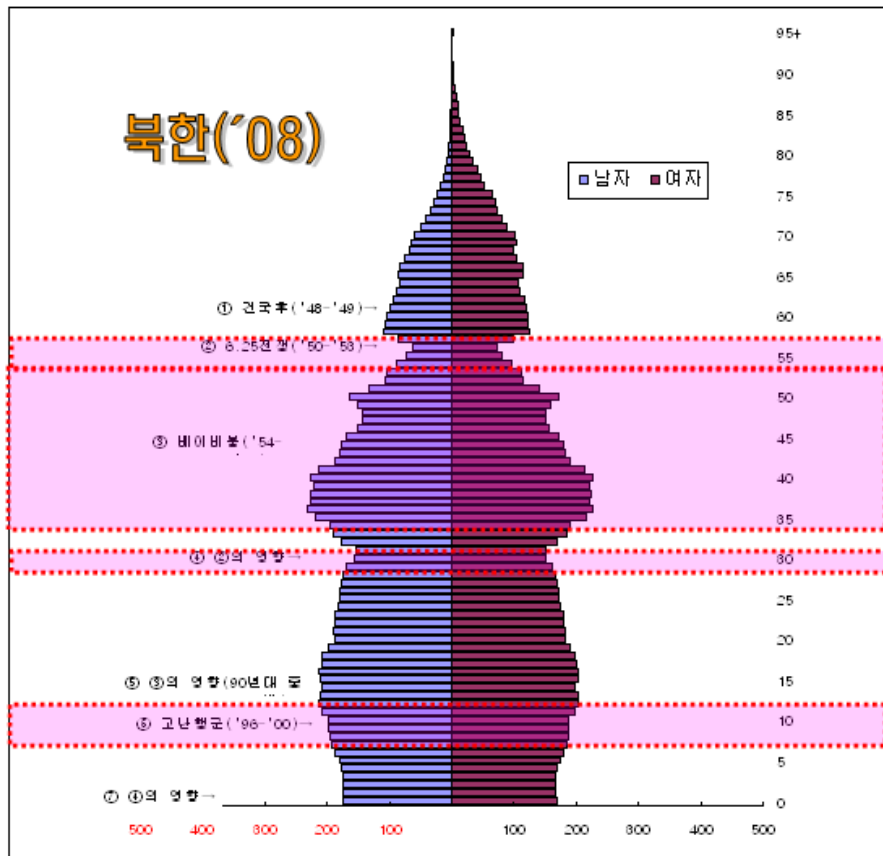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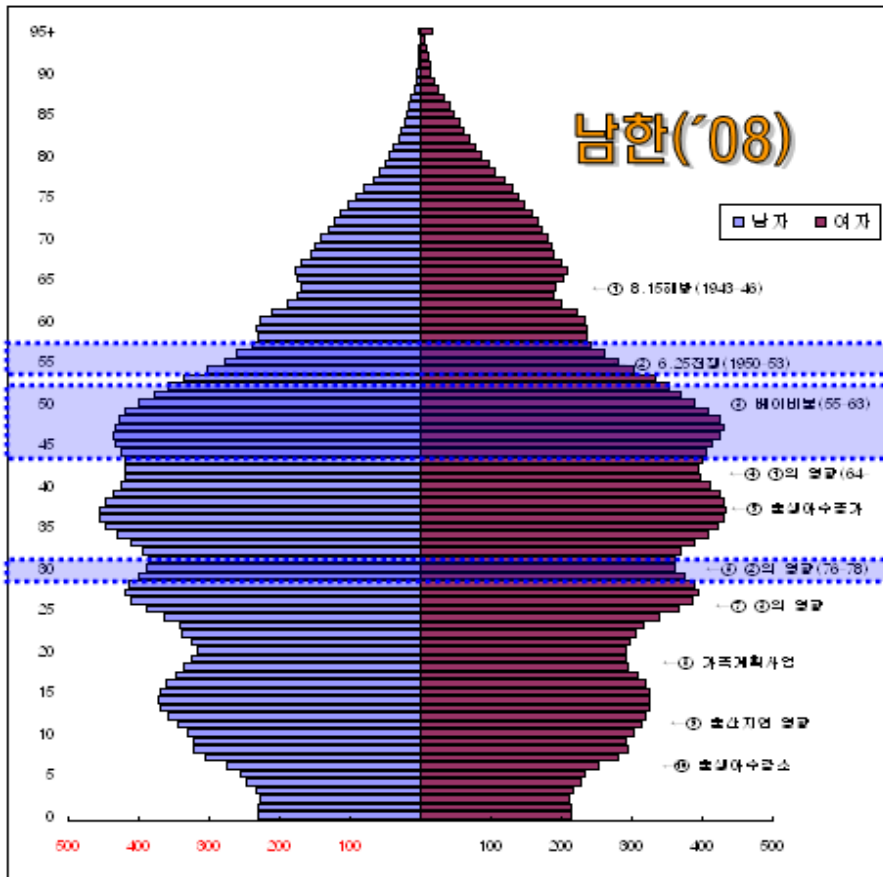
\* 고난의 행군기는 북한이 어려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1996년 당, 군, 청년보에서 공동사설로 주장하기 시작하여 2000년 조선노동당 55주년을 기해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하기까지의 5년간 기간을 의미

-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율은 급감했지만 가임여성 인구가 많아 출생아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북한의 인구피라미드에 나타난 인구구조의 특징(2008년)

피라미드 번호	연령	출생년도	인구	특징	동일 연령 남한 인구	비고
①	59-63세	1945-1949	1,083,802	광복세대	2,118,841	
②	55-58세	1950-1953	705,650	한국전쟁세대	2,027,659	
③	35-54세	1954-1973	6,999,582	베이비붐	16,266,322	-남한의 베이비붐 출생 인구(1955~63년) : 7,164,541명 -북한의 1955-1963년생 : 2,598,501명
④	30-32세	1976-1978	955,881	②의 영향	2,258,897	-한국전쟁 세대의 에코
⑥	8-12세	1996-2000	1,979,828	고난의 행군기	3,208,101	
⑦	0-5세	2004-2008	1,714,429	④의 영향	2,255,184	

<그림 3> 남북한의 인구 구조: 2008년



### 3. 교육정도별 인구(1993, 2008)

#### 가. 재학생 인구

5세이상 인구(2,234만명) 중 24.1%(539만명)가 각급 학교에 재학 중

- 북한의 10세이상 인구 대부분은 문자해독이 가능하며, 2008년 인구센서에 나타난 문맹자는 326명(남자 94명, 여자 232명)으로 거의 없음
- 재학 인구는 539만명으로 5세 이상의 인구(2,234만명)의 24.1%를 차지
  - 재학인구는 중학교가 45.9%(247만명)로 가장 많고, 다음은 소학교 이하 40.6%(219만명), 대학이상 8.1%(44만명) 순임
  - 성별로는 남자가 52.8%(284만명), 여자가 47.2%(254만명)이며, 지역별로는 도시가 61.1%(329만명), 농촌이 38.9%(210만명)로 각각 나타남
  - \* 남한 2005년도 6세이상 인구(4,404만명) 대비 재학 인구가 1,089만명으로 재학 인구비가 24.7%로 북한과 비슷함

<표 3> 학교별 재학생 인구(5세 이상)

(단위 : 명, %)

	계	소학교(4년 이하)	중학교(6년)	직업기술학교(3년미만)	전문학교 3년	대학이상
북한 전체	5,385,407	2,184,608	2,474,033	133,587	156,383	436,796
(비율)	(100.0)	(40.6)	(45.9)	(2.5)	(2.9)	(8.1)
남자	2,841,006	1,117,402	1,263,783	60,484	85,241	314,096
(비율)	(100.0)	(39.3)	(44.5)	(2.1)	(3.0)	(11.1)
여자	2,544,401	1,067,206	1,210,250	73,103	71,142	122,700
(비율)	(100.0)	(41.9)	(47.6)	(2.9)	(2.8)	(4.8)
도시	3,288,138	1,266,670	1,435,239	99,442	117,160	369,627
(비율)	(100.0)	(38.5)	(43.6)	(3.0)	(3.6)	(11.2)
남자	1,756,186	650,025	735,340	44,724	62,344	263,753
(비율)	(100.0)	(37.0)	(41.9)	(2.5)	(3.5)	(15.0)
여자	1,531,952	616,645	699,899	54,718	54,816	105,874
(비율)	(100.0)	(40.3)	(45.7)	(3.6)	(3.6)	(6.9)
농촌	2,097,269	917,938	1,038,794	34,145	39,223	67,169
(비율)	(100.0)	(43.8)	(49.5)	(1.6)	(1.9)	(3.2)
남자	1,084,820	467,377	528,443	15,760	22,897	50,343
(비율)	(100.0)	(43.1)	(48.7)	(1.5)	(2.1)	(4.6)
여자	1,012,449	450,561	510,351	18,385	16,326	16,826
(비율)	(100.0)	(44.5)	(50.4)	(1.8)	(1.6)	(1.7)

## 나. 취학률과 취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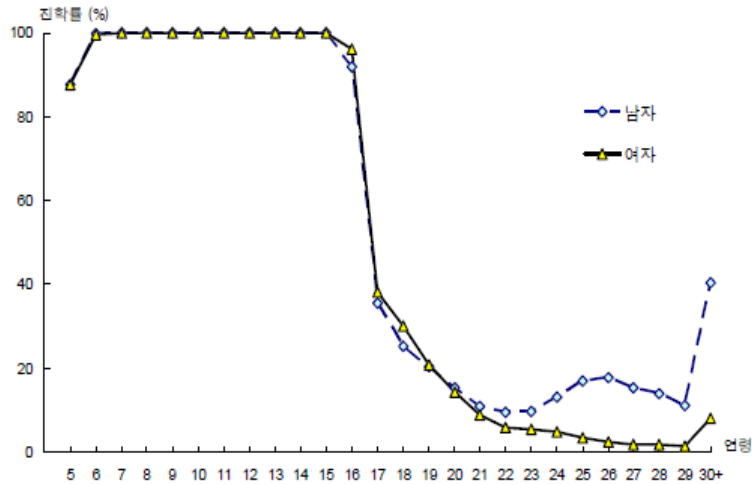
유치원 취학연령인 5세는 취학률이 88%이며, 소학교 및 중학교는 거의 100%

- 유치원 취학연령인 5세는 취학률이 88%이지만, 이후 소학교 4년(6-10세), 중학교 6년(11-16세)의 취학률은 거의 100%에 달함(단, 16세는 93.9%)
-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17세부터는 취학률이 36.8%로 감소하고, 22-23세에는 7.7%로 저점에 도달하였다가 24세부터는 약간 회복한 후 다시 감소하여 29세에는 6.3% 수준
- 17-19세에서는 남자가 군입대 등으로 여자보다 약간 낮지만, 20세부터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씩 더 높아지면서 26세를 전후하여 정점을 보임

<표 4> 연령별 취학률: 2008년

연령	남녀합			남자			여자		
	학령인구 (1000명) (1)	취학인구 (1000명) (2)	취학률 (2)/(1) (3)	학령인구 (1000명) (1)	취학인구 (1000명) (2)	취학률 (2)/(1) (3)	학령인구 (1000명) (1)	취학인구 (1000명) (2)	취학률 (2)/(1) (3)
5	348.2	305.3	87.7	177.5	155.7	87.7	170.7	149.7	87.7
6	358.6	357.5	99.7	182.9	182.3	99.7	175.8	175.2	99.7
7	373.5	373.3	100.0	190.4	190.3	100.0	183.1	183.0	100.0
8	378.7	378.7	100.0	193.8	193.7	100.0	185.0	185.0	100.0
9	387.7	387.7	100.0	198.5	198.5	100.0	189.2	189.2	100.0
10	381.5	381.5	100.0	196.1	196.1	100.0	185.5	185.4	100.0
11	392.9	392.8	100.0	201.3	201.3	100.0	191.5	191.5	100.0
12	419.1	419.0	100.0	214.4	214.3	100.0	204.7	204.7	100.0
13	417.8	417.7	100.0	213.7	213.7	100.0	204.0	204.0	100.0
14	410.1	410.1	100.0	209.8	209.7	100.0	200.4	200.3	100.0
15	404.9	404.9	100.0	207.2	207.2	100.0	197.7	197.7	100.0
16	423.3	397.7	93.9	216.9	199.2	91.9	206.4	198.4	96.1
17	411.2	151.3	36.8	210.2	74.6	35.5	200.9	76.7	38.2
18	406.9	112.6	27.7	208.1	52.6	25.3	198.9	60.0	30.2
19	406.0	83.6	20.6	207.8	42.3	20.4	198.2	41.2	20.8
20	369.9	55.0	14.9	188.6	29.0	15.4	181.3	26.0	14.4
21	369.1	36.8	10.0	188.1	20.6	11.0	181.0	16.2	8.9
22	371.3	28.4	7.7	190.2	17.9	9.4	181.1	10.6	5.8
23	361.3	27.8	7.7	184.7	18.0	9.8	176.6	9.8	5.5
24	369.8	33.5	9.1	189.4	24.9	13.1	180.4	8.7	4.8
25	347.4	35.8	10.3	177.1	30.0	17.0	170.3	5.7	3.4
26	357.7	36.8	10.3	182.8	32.4	17.7	175.0	4.4	2.5
27	345.2	30.3	8.8	176.7	27.2	15.4	168.5	3.1	1.8
28	347.3	27.7	8.0	177.4	24.7	13.9	169.9	3.0	1.7
29	339.5	21.4	6.3	173.6	19.2	11.1	165.9	2.2	1.3
30+	319.0	78.2	24.5	162.2	65.4	40.3	156.8	12.8	8.1

<그림 4> 연령별 취학률의 성별 차이: 2008년



### 다. 교육수준별 인구구조

고등교육기관 졸업 인구는 전체의 16.3%를 차지

- 5세 이상 인구 2,164만명 중에서, 최종 졸업학교가 소학교 이하인 인구는 24.3%, 중학교는 59.4%, 고등교육기관(직업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은 16.3%로 나타남
- 남자의 24.5%, 여자의 24.1%가 소학교 이하를 졸업한 반면, 남자의 56.7%, 여자의 61.8%는 중학교를, 남자의 18.8%, 여자의 14.1%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
  -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전통적인 남녀 교육 격차가 지속
- 도시의 23.0%, 농촌의 26.2%가 소학교 이하를 졸업한 반면, 도시의 58.1%, 농촌의 61.4%가 중학교를, 도시의 18.9%, 농촌의 12.3%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
  - 북한의 도농 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상존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구성비를 시도별로 보면, 자강도가 11.7%로 가장 낮고, 평양직할시는 26.8%로 가장 높았음
  - 북한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구성비가 16.3%인 것을 고려하면, 평양시와 양강도, 강원도 이외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임

- 북한에도 직업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수도인 평양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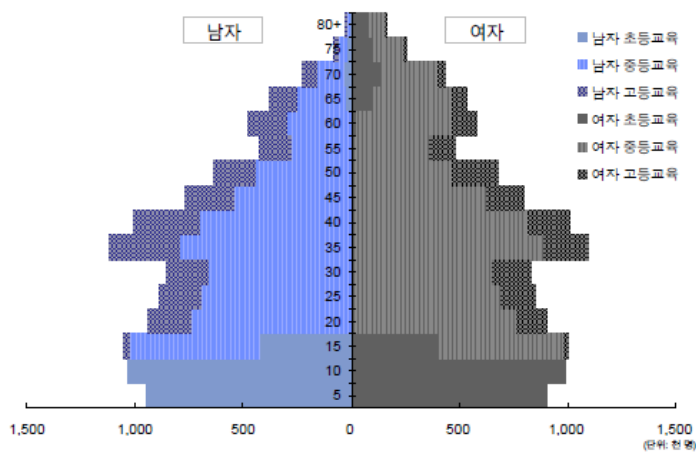
<표 5> 5세 이상 인구의 최종 졸업학교 구성: 2008년

	5세+ 인구 * (천명)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합계
		무학	유치원 / 소학교	중학교	소계	직업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북한 전체	21,640	3.5	20.8	59.4	16.3	2.6	5.0	8.8	100.0
남자	10,187	3.5	21.0	56.7	18.8	2.4	5.2	11.2	100.0
여자	11,453	3.5	20.6	61.8	14.1	2.8	4.7	6.7	100.0
도시	13,162	3.3	19.7	58.1	18.9	2.7	5.6	10.7	100.0
농촌	8,478	3.8	22.4	61.4	12.3	2.5	4.0	5.9	100.0
양강도	667	4.0	23.0	55.4	17.6	2.4	6.1	9.1	100.0
함경북도	2,157	3.4	19.9	61.0	15.7	1.9	5.5	8.3	100.0
함경남도	2,839	3.8	21.5	59.3	15.4	2.7	4.8	8.0	100.0
강원도	1,369	3.4	22.0	58.1	16.5	3.2	5.6	7.6	100.0
자강도	1,203	4.0	21.2	63.2	11.7	1.5	3.6	6.5	100.0
평안북도	2,523	3.8	19.0	62.6	14.6	2.5	4.6	7.4	100.0
평안남도	3,754	3.2	21.5	61.5	13.8	2.2	4.2	7.5	100.0
황해북도	1,960	3.1	19.8	62.7	14.5	2.3	4.9	7.3	100.0
황해남도	2,145	3.5	22.6	60.2	13.7	2.8	4.2	6.6	100.0
평양시	3,023	3.4	19.5	50.3	26.8	3.9	6.5	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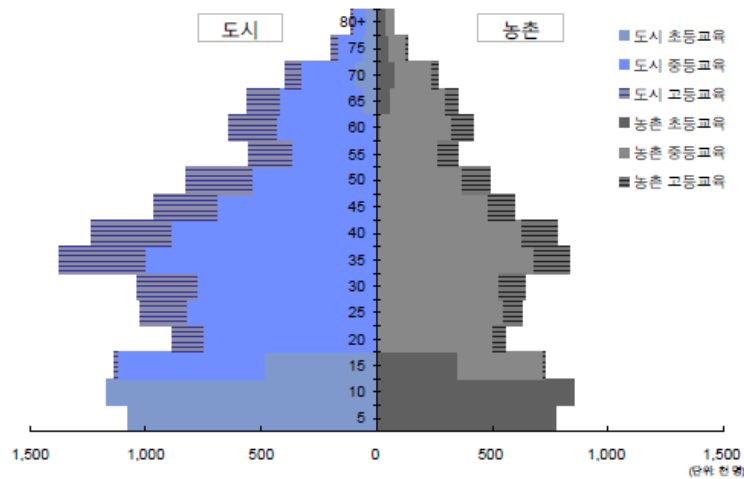
주: \* 집단시설인구 제외

○ 2008년 센서스의 최종 졸업학교별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음

<그림 5> 최종 졸업학교별 인구 피라미드: 2008년



<그림 6> 도시와 농촌의 최종 졸업학교별 인구 피라미드: 2008년



- 북한은 20세부터 60세에 이르는 경제활동인구는 최소한 11년의 의무 교육은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의 질(質)에서 강점을 지님
  - 앞으로 북한이 문호개방을 통하여 경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고학력의 노동가능연령인구는 좋은 인적자본임
-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인구피라미드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함(<그림 6>)
- 북한의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 16세 이상 인구 1,806.5만명 중 전문학교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기사, 기수, 전문가, 또는 중등전문가의 기술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인구의 16.5%인 297.3만명임(표 미제시)
- 전문학교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16세 이상의 인구 297.3만명의 다섯 가지 주요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공학 20%, 교원 및 교양원학 19.9%, 농업·임업·수산 15.6%, 보건 9.2%, 재정은행·경영부문학 7.4%임
  - 남녀별로 구분하면, 남자는 공학 26.5%, 농업·임업·수산 19.1%, 교원 및 교양원학 10.8%, 여자는 교원 및 교양원학 31.6%, 보건 12.7%, 공학 11.6%, 농업·임업·수산 11.1%의 순임
  - 농촌 거주자는 농업·임업·수산 27.2%, 교원 및 교양원학 22.2%, 공학 16.5%, 보건 7.4%의 순이고, 도시 거주자는 공학 21.3%, 교원 및 교양원학이 19.0%, 보건 9.9%, 재정은행·경영부문학 8.4%의 순임

<표 6> 고등교육 이수자의 전공분야 구성: 2008년

	성별		도시/농촌지역		합계
	남자	여자	도시	농촌	
인구(명)	1,671,996	1,300,856	2,135,900	836,952	2,972,852
교원 및 교양원학	10.8	31.6	19.0	22.2	19.9
문화예술학	1.8	2.0	2.3	0.9	1.9
인문학	2.4	2.1	2.6	1.5	2.3
사회경제학	3.9	1.7	3.0	2.7	2.9
신문 및 도서관학	0.1	0.1	0.1	0.0	0.1
재정은행, 경영부문학	5.7	9.7	8.4	5.0	7.4
법학	0.4	0.1	0.3	0.2	0.3
생명과학	0.5	0.5	0.5	0.3	0.5
물리학	2.1	0.9	1.7	1.3	1.6
수학 및 통계학	1.1	2.5	1.9	1.2	1.7
컴퓨터 과학	1.1	0.6	1.1	0.4	0.9
공학	26.5	11.6	21.3	16.5	20.0
제조 및 가공학	3.7	5.9	5.3	3.0	4.7
건축 및 건설학	3.1	2.1	2.9	2.1	2.7
농업, 임업, 수산	19.1	11.1	11.1	27.2	15.6
수의학	1.1	0.7	0.8	1.2	0.9
보건	6.4	12.7	9.9	7.4	9.2
사회보호봉사	0.0	0.0	0.0	0.0	0.0
봉사 및 체육	1.6	2.7	2.4	1.3	2.1
운수	2.9	0.7	2.1	1.5	1.9
환경공학	0.0	0.0	0.0	0.0	0.0
안전봉사	5.6	0.5	3.2	3.7	3.3
미상/무응답	0.2	0.1	0.2	0.2	0.2
합계	100	100	100	100	100

## 라. 교육수준의 국제비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11년간 의무 교육

-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은 유치원 1년(5세), 초등학교 4년(6-9세), 중학교 6년(10-15세) 등 모두 11년임
  - 미얀마는 4년, 스페인은 6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8년,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은 9~10년으로 설정
- 북한의 2년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의 총취학률(재학 인원을 학령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수치)은 94%에 이릅니다

<표 7> 각급 학교 총취학률의 국제비교: 2007, 2008년

국가	총취학률((재학인원/학령인구)*100)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북한*	94	100	100	19
한국	104	114	101	95
일본	106	98	101	58
중국	42	93	96	23
독일	107	102	100	-
프랑스	113	-	111	56
러시아	100	97	82	75
체코	100	109	99	55
폴란드	98	97	101	67
쿠바	111	98	93	109

주: 북한은 2008년 센서스 자료이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유네스코 교육통계 2009의 2007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한국,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 유치원의 취학률은 100%를 초과한 반면,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국은 42%에 불과
-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00% 수준
- 직업기술학교, 전문학교와 4년제 이상의 대학에 취학하는 것을 모두 포괄했을 때, 북한의 대학교 학령인구의 취학률은 19%에 이릅니다
  - 이는 동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쿠바 100%, 러시아 75%, 폴란드 67%, 체코공화국 55% 등
  - 중국의 23%와는 유사
  -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 58%나 한국 95%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은 수준
- 북한 대학졸업자 중 인문학 전공자의 비율은 4%에 불과
  - 구 사회주의권 국가와 비교하면 러시아의 3%와 비슷하며, 체코공화국 8%, 폴란드 9%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한국 18%, 일본 15%, 독일 16%, 프랑스 11%보다도 낮음
- 북한의 대학졸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전공자가 58%를 차지하여, 한국의 34%보다 높은 수준임

<표 8> 대학졸업자 중 인문학 및 과학기술분야 전공자의 비중

국가	인문학		과학기술분야	
	구성비(%)	여자의 비율(%)	구성비(%)	여자의 비율(%)
북한*	4	43	58	44
한국	18	67	34	26
일본	15	69	21	14
독일	16	73	25	30
프랑스	11	71	27	28
러시아	3	-	27	-
체코	8	68	24	29
폴란드	9	77	17	39

주: 북한은 2008년 센서스 자료이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유네스코 교육통계 2009의 2007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인문학에는 본래 분류의 인문학과 예술을 포함하고, 과학기술분야는 생명과학, 물리학, 수학 및 통계학, 컴퓨터 과학, 공학, 제조업 및 가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농림어업, 수의학, 공중보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혼인상태별 인구(1993, 2008)

남녀 모두 비교적 늦게, 또 상당히 좁은 범위의 연령대에 첫 결혼

- 남자는 미혼율이 20대 초반까지는 거의 100%이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여 30대 후반부터는 거의 모두 기혼상태가 됨
- 여자는 20대 초반과 후반 모두 미혼율이 남자보다 훨씬 낮으며, 30대 초반에서는 미혼율이 5% 이하로 감소 \* 남한의 1995년 통계와 비슷한 수준
- 이혼율은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남녀 사이의 차이는 현저
  - 여자는 30세 이상에서 1~2% 수준, 남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0.5% 이하
- 여자의 사별률이 남자보다 훨씬 높음
- 혼인상태 구성이 행정구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대체로 도시가 농촌보다 약간 높은 미혼율, 낮은 기혼율, 그리고 약간 높은 이혼율을 보임

<표 9>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의 분포: 2008년

구분	연령	남자				여자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북한 전체	15-19	100.0	0.0	0.0	0.0	99.7	0.3	0.0	0.0
	20-24	98.2	1.8	0.0	0.0	80.5	19.4	0.0	0.1
	25-29	64.8	35.1	0.1	0.0	24.6	74.6	0.3	0.5
	30-34	12.8	86.7	0.4	0.1	3.9	93.9	1.0	1.3
	35-39	1.6	97.6	0.5	0.3	1.7	94.1	1.6	2.6
	40-44	0.3	98.8	0.4	0.5	1.0	92.6	1.7	4.7
	45-49	0.1	99.0	0.2	0.6	0.5	90.6	1.1	7.8
	50-54	0.1	98.9	0.1	0.9	0.2	86.6	0.6	12.7
도시	15-19	100.0	0.0	0.0	0.0	99.8	0.2	0.0	0.0
	20-24	98.6	1.4	0.0	0.0	82.9	17.0	0.0	0.1
	25-29	67.3	32.6	0.1	0.0	27.3	71.9	0.4	0.4
	30-34	14.8	84.7	0.4	0.1	4.3	93.5	1.0	1.2
	35-39	2.0	97.3	0.5	0.3	2.0	93.7	1.8	2.5
	40-44	0.4	98.8	0.4	0.4	1.1	92.3	1.9	4.6
	45-49	0.1	99.1	0.2	0.6	0.6	90.5	1.2	7.6
	50-54	0.0	99.0	0.1	0.8	0.2	86.4	0.6	12.8
농촌	15-19	100.0	0.0	0.0	0.0	99.6	0.4	0.0	0.0
	20-24	97.6	2.4	0.0	0.0	76.9	23.0	0.0	0.1
	25-29	60.7	39.2	0.1	0.0	20.2	78.9	0.3	0.6
	30-34	9.5	90.0	0.3	0.2	3.2	94.6	0.9	1.4
	35-39	1.1	98.3	0.4	0.3	1.4	94.6	1.3	2.7
	40-44	0.2	98.9	0.3	0.5	0.7	93.0	1.4	4.9
	45-49	0.1	99.0	0.2	0.7	0.3	90.7	0.9	8.1
	50-54	0.1	98.8	0.1	1.0	0.1	87.0	0.5	12.5

○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는 29.0세, 여자는 25.5세로 나타남

\* 평균 초혼연령은 연령별 미혼율을 이용하여 헤이날(John Hajnal)이 고안한 평균 초혼연령(SMAM)을 계산하여 사용

- 초혼연령이 높은 이유는 70년대 후반부터 만혼을 권장했으며, 교육정도의 상승, 20대 남성들의 오랜 군복무, 20세 전후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 등 때문으로 보임
- 남녀 평균 초혼연령 차이(남자>여자)의 일정 부분은 고등교육 취학률의 차이(예, 남자 25세 17%, 여자 25세 3.4%)와 남자 군복무(18세에서 27세)의 영향으로 보임
- 지역별 남녀 초혼연령의 차이는 강원도의 도시 지역이 3.9세로 가장 컸고, 자강도 및 평안북도의 도시 지역이 2.9세로 차이가 가장 적었음

○ 초혼연령의 행정구역과 도시/농촌 간 차이는 매우 작음

- 도시는 농촌 보다 초혼연령이 남녀 모두 0.7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 초혼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자강도(남자 28.1, 여자 25.1)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평양시(남자 30.1, 여자 26.7)임

<표 10> 남녀 인구의 지역별 평균 초혼연령(SMAM): 2008년

	남자	여자	남녀 격차
북한 전체	29.0	25.5	3.5
도시	29.1	25.8	3.3
농촌	28.4	25.1	3.4
양강도	28.9	25.4	3.5
도시	29.1	25.5	3.5
농촌	28.5	25.2	3.3
함경북도	28.8	25.3	3.4
도시	28.9	25.5	3.4
농촌	28.5	25.0	3.5
함경남도	29.1	26.1	3.0
도시	29.3	26.2	3.1
농촌	29.0	26.0	3.0
강원도	29.1	25.3	3.8
도시	29.6	25.8	3.9
농촌	28.5	24.8	3.6
자강도	28.1	25.1	3.0
도시	28.4	25.5	2.9
농촌	27.5	24.5	3.1
평안북도	28.2	25.2	3.0
도시	28.4	25.5	2.9
농촌	28.0	24.9	3.1
평안남도	28.7	25.3	3.4
도시	28.8	25.4	3.4
농촌	28.6	25.1	3.5
황해북도	28.6	25.1	3.5
도시	29.0	25.6	3.5
농촌	28.3	24.8	3.5
황해남도	28.3	24.7	3.7
도시	28.5	24.9	3.6
농촌	28.3	24.5	3.7
평양시	30.1	26.7	3.4
도시	30.2	26.8	3.4
농촌	29.2	25.9	3.3

## 5. 출산력(1993, 2008)

합계출산율이 농촌 2.18, 도시 1.89; 시도별로는 평안북도 2.05, 평양시 1.92

- 북한 합계출산율의 지역 간 차이는 1993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매우 미미해 짐
  - 도농 간 합계출산율 차이 : 0.56(1993년) → 0.29(2008년)
  - 시도 간 차이 : 0.36(황해남도-함경남도, 1993) → 0.13(평안북도-평양시, 2008년)
- 1993~2008년 기간 중 황해남도에서는 출산율이 0.33 떨어졌지만, 함경남도에서는 출산율이 0.04 상승하여 지역 간 차이의 일관성은 부족

<표 11> 도시, 농촌과 행정구역별 합계출산율: 1993년, 2008년

	1993(A)	2008(B)	차이(A-B)
북한 전체	2.13	2.00	0.13
도시	1.91	1.89	0.02
농촌	2.47	2.18	0.29
양강도	2.11	1.98	0.13
함경북도	2.28	2.00	0.28
함경남도	1.99	2.03	-0.04
강원도	2.19	2.02	0.17
자강도	2.26	2.04	0.22
평안북도	2.18	2.05	0.13
평안남도	2.08	2.01	0.07
황해북도	2.25	1.98	0.27
황해남도	2.35	2.02	0.33
평양시	2.15	1.92	0.23

합계출산율이 학력별로는 소학교 2.05, 대학 1.93; 직업별은 농장원 2.16, 사무원 1.92

- 교육수준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편차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낮아지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소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차이는 0.12에 불과

- 북한 여자의 직업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사무원의 출산율이 가장 낮고 농장원의 출산율이 가장 높음
- 편차는 전국이 0.24인 가운데, 강원도가 0.61로 가장 크고, 황해남도가 0.11로 가장 작음

<표 12> 지역, 학력, 직업별 합계출산율: 1993년과 2008년

	1993 (A)	2008 (B)	차이 (B-A)	최종 졸업학교별(2008년)				직업별(2008년)			
				소학교	중학교	직업기술 전문학교	대학교	노동자	사무원	농장원	기타
북한 전체	2.13	2.01	-0.13	2.05	2.03	1.95	1.93	1.95	1.92	2.16	2.00
도시	1.91	1.89	-0.02								
농촌	2.47	2.18	-0.29								
양강도	2.11	1.98	-0.13	2.55	2.02	1.94	1.81	1.90	1.89	2.24	1.81
함경북도	2.28	2.00	-0.28	-	2.01	2.00	2.00	1.96	1.93	2.24	1.77
함경남도	1.99	2.03	0.04	-	2.07	1.90	1.90	1.94	1.92	2.07	2.53
강원도	2.19	2.02	-0.17	-	2.04	2.02	2.01	1.87	1.70	2.31	2.19
자강도	2.26	2.04	-0.22	-	2.06	2.02	1.88	2.00	1.92	2.23	2.00
평안북도	2.18	2.05	-0.13	3.80	2.08	1.96	1.95	2.00	1.97	2.21	1.93
평안남도	2.08	2.01	-0.07	-	2.03	2.02	1.94	1.99	1.93	2.13	2.02
황해북도	2.25	1.98	-0.27	-	2.00	1.96	1.89	1.82	1.76	2.10	2.34
황해남도	2.35	2.02	-0.33	2.02	2.02	2.02	2.01	2.02	1.98	2.09	1.59
평양시	2.15	1.92	-0.23	-	1.96	1.88	1.86	1.90	1.90	2.33	1.74

## 6. 사망력(1993,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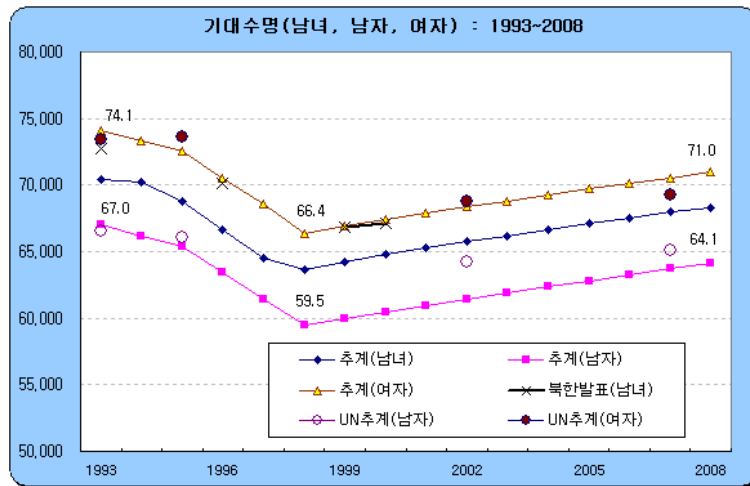
### 가. 기대수명

기대수명이 남자는 '93년 67.0세에서 '98년 59.5세, 여자는 '93년 74.1세에서 '98년 66.4세까지 감소했으며, 이후 점차 회복하는 추세

-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식량난이 계속 악화되면서 기대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식량난이 절정(1997~98)에 달한 1998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
- 남자는 1993년 67.0세에서 1998년 59.5세로 7.5세가 감소
- 여자는 1993년 74.1세에서 1998년 66.4세로 7.7세가 감소

- 1990년대 중반이후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의 식량지원이 계속되고 작황도 일부 개선되면서 식량난이 완화되어 기대수명도 점점 회복하는 중
- 하지만 2008년에도 기대수명은 남자가 64.1세, 여자가 71.0세로 1990년대 초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8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남한의 1984년, 여자는 1982년 수준임

<그림 7> 기대수명(1993~2008)



<표 13> 사망률 및 기대수명 추이 : 1993~2008년

연도	조사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북한, UNICEF)	기대수명(세)					
	추계	북한 발표		추계(남녀)	추계(남자)	추계(여자)	북한발표(남녀)	UN(남자)	UN(여자)
1993	5.88	5.5	27	70.4	67.0	74.1	72.7	66.6	73.5
1994	6.97		28	70.2	66.2	73.3			
1995	7.99	6.5	32	68.7	65.4	72.5		66.1	73.6
1996	9.40	6.8	39	66.7	63.4	70.5	70.1		
1997	10.83		43	64.5	61.4	68.5			
1998	11.34	9.3	50	63.7	59.5	66.4			
1999	10.97	8.9	48	64.3	60.0	66.9	66.8		
2000	10.65	8.8	49	64.8	60.5	67.4	67.1		
2001	10.38			65.3	61.0	67.9			
2002	10.13		32	65.7	61.4	68.4		64.2	68.8
2003	9.92			66.2	61.9	68.8			
2004	9.74			66.6	62.4	69.3			
2005	9.60			67.1	62.8	69.7			
2006	9.48			67.5	63.3	70.1			
2007	9.36			68.0	63.7	70.5		65.1	69.3
2008	9.13	9.0		68.3	64.1	71.0			

## 나. 연령별 사망 패턴

동일한 기대수명 수준에서 비교할 때, 고령층(특히 남자 60세 이후, 여자 75세 이후)에서 사망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독특한 패턴

- 2008년 연령별 사망확률은 동일한 기대여명의 남한(남자는 1984년, 여자는 1982년)에 비해, 영유아와 고령층은 높고 젊은 층은 낮음
- 연령별 사망확률 패턴을 UN의 지역모델생명표와 비교하면
  - 남자는 50세까지는 낮다가 55세부터 급증하여 일반 패턴과 같아지고, 60세부터 급증해 고연령층 사망률이 높은 극동 패턴보다도 더 높아짐
  - 여자는 일반이나 극동 패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75세부터 급격하게 사망확률이 높아져 일반이나 극동 패턴 보다 더 높아지는 양상
  - \* UN의 극동(Far East) 모형 : 남자는 고연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여자보다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패턴
- 고연령층에서는 극동 모형보다도 더 높은 사망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전형적인 북한 패턴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는 어렸을 때의 높은 결핵 유행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4> 남북한의 연령별 사망확률(남자) : 1993 및 2008

	북한(a) (e=67세,'93)	남한(b) (e=67세,'89)	차이(c=a-b)	북한(d) (e=64세,'08)	남한(e) (e=64세,'84)	차이(f=d-e)
0-1	0.0317	0.0143	0.0174	0.0371	0.0222	0.0149
1-4	0.0128	0.0047	0.0081	0.0084	0.0073	0.0011
5-9	0.0034	0.0037	-0.0003	0.0050	0.0055	-0.0005
10-14	0.0018	0.0029	-0.0011	0.0043	0.0038	0.0005
15-19	0.0022	0.0061	-0.0039	0.0065	0.0080	-0.0016
20-24	0.0027	0.0078	-0.0051	0.0101	0.0100	0.0001
25-29	0.0051	0.0100	-0.0049	0.0121	0.0114	0.0007
30-34	0.0065	0.0126	-0.0060	0.0141	0.0142	-0.0001
35-39	0.0078	0.0193	-0.0114	0.0161	0.0208	-0.0047
40-44	0.0134	0.0271	-0.0137	0.0194	0.0354	-0.0160
45-49	0.0204	0.0445	-0.0241	0.0251	0.0507	-0.0257
50-54	0.0342	0.0594	-0.0252	0.0402	0.0703	-0.0301
55-59	0.0723	0.0820	-0.0097	0.0815	0.1033	-0.0218
60-64	0.1447	0.1251	0.0196	0.1625	0.1541	0.0084
65-69	0.2224	0.1834	0.0389	0.2543	0.2270	0.0273
70-74	0.3255	0.2784	0.0471	0.3544	0.3241	0.0303
75-79	0.4587	0.4096	0.0491	0.5007	0.4516	0.0491
80+	1.0000	1.0000	0.0000	1.0000	1.0000	0.0000

<표 15> 남북한의 연령별 사망확률(여자) : 1993 및 2008

	북한(a) (e=74세,'93)	남한(b) (e=74세,'87)	차이(c=a-b)	북한(d) (e=71세,'08)	남한(e) (e=71세,'82)	차이(f=d-e)
0-1	0.0331	0.0155	0.0176	0.0367	0.0262	0.0105
1-4	0.0127	0.0050	0.0077	0.0075	0.0085	-0.0011
5-9	0.0025	0.0035	-0.0010	0.0040	0.0056	-0.0016
10-14	0.0012	0.0025	-0.0012	0.0038	0.0036	0.0002
15-19	0.0019	0.0035	-0.0016	0.0054	0.0055	-0.0001
20-24	0.0029	0.0044	-0.0015	0.0069	0.0066	0.0003
25-29	0.0033	0.0050	-0.0017	0.0080	0.0071	0.0009
30-34	0.0035	0.0059	-0.0024	0.0089	0.0086	0.0004
35-39	0.0038	0.0083	-0.0046	0.0097	0.0111	-0.0014
40-44	0.0054	0.0124	-0.0070	0.0120	0.0157	-0.0037
45-49	0.0081	0.0179	-0.0097	0.0158	0.0223	-0.0065
50-54	0.0129	0.0257	-0.0128	0.0234	0.0329	-0.0095
55-59	0.0250	0.0382	-0.0132	0.0434	0.0459	-0.0024
60-64	0.0489	0.0578	-0.0089	0.0779	0.0703	0.0077
65-69	0.0889	0.0980	-0.0091	0.1048	0.1124	-0.0077
70-74	0.1640	0.1626	0.0014	0.1673	0.1799	-0.0126
75-79	0.2909	0.2643	0.0267	0.2938	0.2773	0.0166
80+	1.0000	1.0000	0.0000	1.0000	1.0000	0.0000

## 7. 경제활동(1993, 2008)

### <경제활동 자료의 남북한 자료 비교시 유의사항>

- \*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일상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로 질문하는 평상상태접근법에 의해 노동력을 파악한 반면, 남한의 2005년 인구센서스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까?”로 질문하는 노동력접근법으로 조사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 비교는 곤란

### 가.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70.2%)이 고난의 행군기(1996~2000) 직전인 1993년(76.0%)에 비해 5.8%p 감소

- 2008년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 인구는 1,219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18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0.2%임
  - 이 중 남자가 52.2%(636만명), 여자가 47.8%(583만명)를 차지
    - \* 남한은 남자 61.7%, 여자 38.3%(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
  -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합 70.2%, 남자 79.5%, 여자 62.2%로 나타나, 1993년도 대비 전체 5.8%p, 남자 5.1%p, 여자 6.7%p 각각 감소
-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미약하나마 남한처럼 'M'자형 패턴이 관찰됨
-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로 남한에 비해 일찍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성,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북한						남한(2007년) *		
	1993년			2008년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전체	76.0	84.6	68.9	70.2	79.5	62.2	60.8	72.3	49.8
19세이하	64.6	62.6	66.3	52.5	49.3	55.3	10.8	7.9	13.9
20~29세	87.5	84.6	89.8	87.9	86.1	89.3	62.7	63.3	62.1
30~39세	92.5	97.1	88.1	90.7	97.3	84.1	74.3	91.4	56.5
40~49세	94.8	98.7	91.1	91.3	98.5	84.3	77.8	91.9	63.4
50~59세	74.6	97.4	54.5	76.4	97.5	57.1	68.7	85.0	52.5
60세이상	8.4	16.5	4.1	7.3	15.5	2.4	37.8	49.8	28.8

주: \* 평상상태 접근법을 사용한 남한의 인력실태조사(2007)결과

- 경제활동참가율은 평안북도가 72.0%로 가장 높고, 평양시는 67.7%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시도별 구성비는 평안남도가 17.6%로 가장 크고, 평양시 (13.6%), 함경남도(13.1%), 평안북도(12.0%), 함경북도(10.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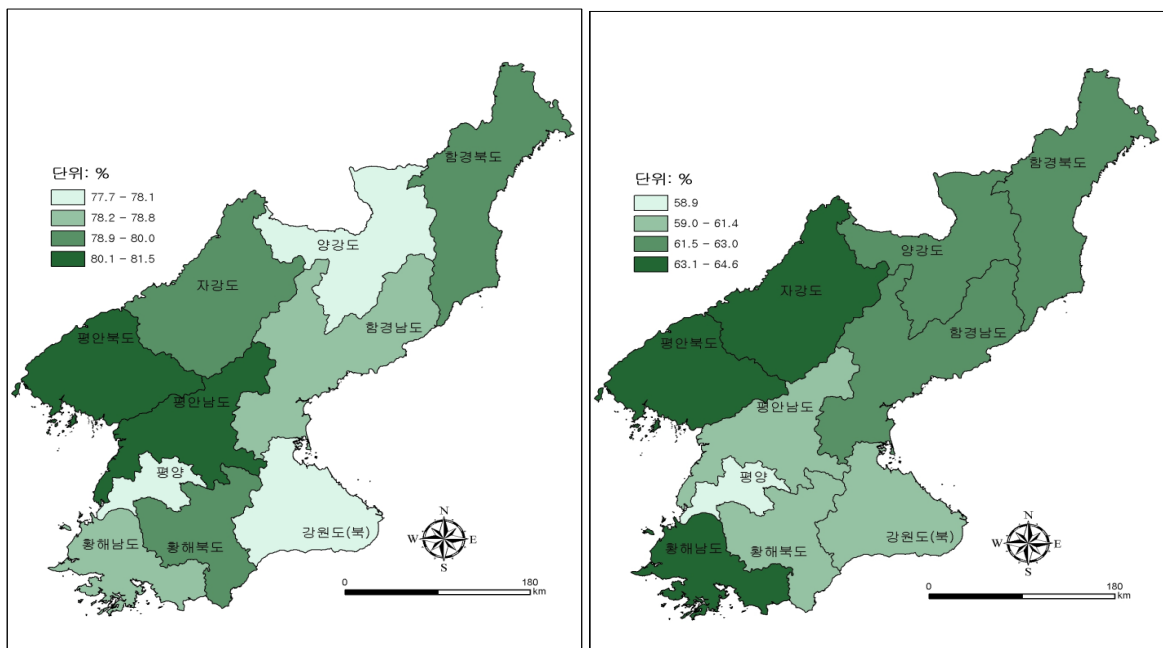
<표 17> 시도별 취업자

시도	16세이상 인구(명)	일하였음(명)		일하지 않았음(명)		취업자 구성비(%)
			%		%	
북한 전체	17,366,769	12,184,720	70.2	5,182,049	29.8	100.0
도시	10,686,523	7,442,234	69.6	3,244,289	30.4	61.1
농촌	6,680,246	4,742,486	71.0	1,937,760	29.0	38.9
양강도	528,137	366,732	69.4	161,405	30.6	3.0
함경북도	1,733,367	1,226,316	70.8	507,051	29.3	10.1
함경남도	2,283,155	1,597,885	70.0	685,270	30.0	13.1
강원도	1,085,352	744,519	68.6	340,833	31.4	6.1
자강도	969,291	691,981	71.4	277,310	28.6	5.7
평안북도	2,024,019	1,458,191	72.0	565,828	28.0	12.0
평안남도	3,039,228	2,149,974	70.7	889,254	29.3	17.6
황해북도	1,561,562	1,088,581	69.7	472,981	30.3	8.9
황해남도	1,688,310	1,199,874	71.1	488,436	28.9	9.9
평양시	2,454,348	1,660,667	67.7	793,681	32.3	13.6

<그림 8>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 나. 산업별 취업자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36.0%) > 3차산업(34.4%) > 2차산업(29.6%)

- 산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 439만명(36.0%), 제조업 288만명(23.7%),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47만명(20.3%)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 성비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업(350)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0)임

- ▶ 2008년 북한센서스의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를 따름
- ▶ 1993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공업 37.5%, 농림어업 30.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2.4%, 기타 9.4%임

<표 18> 성별 산업분포

(단위 : 명, %)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남녀합	12,184,720 (100)	4,386,895 (36.0)	718,195 (5.89)	2,882,982 (23.7)	367,650 (3.0)	698,560 (5.7)	657,955 (5.4)	2,472,483 (20.3)
남자	6,359,938 (100)	2,082,297 (32.7)	458,484 (7.21)	1,507,014 (23.7)	285,941 (4.5)	200,553 (3.2)	467,762 (7.4)	1,357,887 (21.4)
여자	5,824,782 (100)	2,304,598 (39.6)	259,711 (4.46)	1,375,968 (23.6)	81,709 (1.4)	498,007 (8.6)	190,193 (3.3)	1,114,596 (19.1)
성비	109	90	177	110	350	40	246	122

주 : 계에는 산업미상 포함

평양시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33.8%), 자강도는 제조업(32.2%), 평안남도는 광업(12.0%), 황해남도는 농림어업(58.1%)의 비중이 높음

- 평양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33.8%), 제조업(28.8%), 농림어업(13.5%)의 순인데, 타 지역에 비해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자강도는 농림어업(33.0%), 제조업(32.2%),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19.0%) 순이며,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32.2%)의 비중이 높음
  -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강계시는 제조업이 발달

- 평안남도는 농림어업(31.5%), 제조업(27.0%),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16.7%) 순이며, 타 지역에 비해 광업(12.0%)의 비중이 높음
  - 평안남도는 개천탄전, 남부탄전 등 한반도 제일의 탄전 위치
- 황해남도는 농림어업(58.1%),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16.0%), 제조업(13.9%) 순이며, 타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58.1%)의 비중이 높음
- 1차 산업 비중은 황해남도(58.1%), 황해북도(45.7%), 2차 산업은 평안남도(39.0%), 자강도(35.3%), 3차 산업은 평양시(55.4%), 양강도(44.9%)가 높음

<표 19> 시도별 산업분포

(단위 :명, %)

지역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북한 전체	12,184,720 (100.0)	4,386,895 (36.0)	718,195 (5.9)	2,882,982 (23.7)	367,650 (3.0)	698,560 (5.7)	657,955 (5.4)	2,472,483 (20.3)
양강도	366,732 (100.0)	127,307 (34.7)	22,851 (6.2)	52,357 (14.3)	8,651 (2.4)	21,829 (6.0)	31,781 (8.7)	101,956 (27.8)
함경북도	1,226,316 (100.0)	377,032 (30.8)	91,598 (7.5)	318,749 (26.0)	34,679 (2.8)	80,254 (6.5)	86,665 (7.1)	237,339 (19.4)
함경남도	1,597,885 (100.0)	641,750 (40.2)	121,829 (7.6)	340,432 (21.3)	36,363 (2.3)	107,565 (6.7)	79,851 (5.0)	270,095 (16.9)
강원도	744,519 (100.0)	313,999 (42.2)	21,748 (3.0)	132,340 (17.8)	149,40 (2.0)	47,667 (6.4)	38,083 (5.1)	175,742 (23.6)
자강도	691,981 (100.0)	228,486 (33.0)	21,443 (3.1)	223,116 (32.2)	13,554 (2.0)	37,906 (5.5)	36,332 (5.3)	131,144 (19.0)
평안북도	1,458,191 (100.0)	602,637 (41.3)	58,941 (4.0)	369,678 (25.4)	35,544 (2.4)	79,438 (5.5)	52,513 (3.6)	259,440 (17.8)
평안남도	2,149,974 (100.0)	676,771 (31.5)	258,754 (12.0)	579,856 (27.0)	65,089 (3.0)	96,391 (4.5)	113,267 (5.3)	359,846 (16.7)
황해북도	1,088,581 (100.0)	496,895 (45.7)	42,425 (3.9)	221,466 (20.3)	38,220 (3.5)	65,412 (6.0)	40,948 (3.8)	183,215 (16.8)
황해남도	1,199,874 (100.0)	697,379 (58.1)	41,184 (3.4)	166,265 (13.9)	23,196 (1.9)	42,329 (3.5)	37,569 (3.1)	191,952 (16.0)
평양시	1,660,667 (100.0)	224,639 (13.5)	37,422 (2.3)	478,723 (28.8)	97,414 (5.9)	119,769 (7.2)	140,946 (8.5)	561,754 (33.8)

## 다.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분포는 농림어업 숙련직의 비중(34.8%)이 가장 높으며, 취업자 성비가 가장 높은 직업은 관리직(509)임

○ 직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 숙련직 34.8%(425만명), 기능원 17.4%(212만명), 기계조작·조립원 14.3%(174만명) 순임

○ 성별로는 남녀 모두 농림어업 숙련직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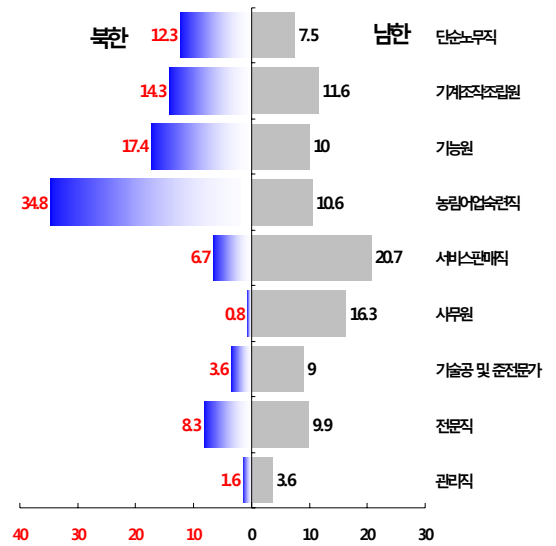
- 준전문직 이상(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포함)의 성별 분포는 남자는 15.4%, 여자는 11.4%로 나타남

○ 취업자 성비는 관리직(509), 전문직(194), 기능원(193)에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서비스·판매직(7)과 사무원(22)은 성비가 크게 낮아 여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음

<그림 9> 직업분포 남북비교

(단위 : %)



<표 20> 성별 직업분포

(단위 : 명, %)

		계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원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원	기계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남녀합		12,184,720 (100.0)	189,554 (1.6)	1,011,034 (8.3)	442,042 (3.6)	102,146 (0.8)	816,899 (6.7)	4,244,642 (34.8)	2,124,061 (17.4)	1,743,180 (14.3)	1,503,526 (12.3)
남자		6,359,938 (100.0)	158,408 (2.5)	667,710 (10.5)	154,856 (2.4)	18,565 (0.3)	54,197 (0.9)	1,920,030 (30.2)	1,398,470 (22.0)	1,114,793 (17.5)	868,797 (13.7)
여자		5,824,782 (100)	31,146 (0.5)	343,324 (5.9)	287,186 (4.9)	83,581 (1.4)	762,702 (13.1)	2,324,612 (39.9)	725,591 (12.5)	628,387 (10.8)	634,729 (10.9)
성비	북한 (2008)	109	509	194	54	22	7	83	193	177	137
	남한 (2005)	161	837	103	217	134	80	110	510	396	190

주: 북한의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6차)를 따랐으며, 계에는 직업미상 포함

## 라. 가구 내 경제활동

16세 이상 인구 중 텃밭 가꾸기, 가축사육 등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구 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10명 중 3명 꼴

-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 가구 내 경제활동 종사 비중은 남자가 27.9%, 여자가 32.8%임
- 연령대별로는 30대(31.5%), 20대(31.1%), 40대와 50대(30.7%), 60대(30.1%) 순으로 가구 내 경제활동에 참여

<표 21> 성, 연령별 가구 내 경제활동 참가율

구분	전체(명)	종사함(명)		종사하지 않음(명)	
			%		%
남녀합	17,366,769	5,302,854	30.5	12,063,915	69.5
남자	8,001,786	2,233,513	27.9	5,768,273	72.1
여자	9,364,983	3,069,341	32.8	6,295,642	67.2
19세 이하	1,458,080	393,780	27.0	1,064,300	73.0
20~29세	3,091,194	961,055	31.1	2,130,139	68.9
30~39세	3,879,663	1,221,982	31.5	2,657,681	68.5
40~49세	3,566,593	1,094,882	30.7	2,471,711	69.3
50~59세	2,216,496	680,401	30.7	1,536,095	69.3
60세 이상	3,154,743	950,754	30.1	2,203,989	69.9

- 가구 내 경제활동의 유형은 텃밭 가꾸기가 31.5%로 가장 높고, 가축 사육은 26.0%, 딸감구하기 21.1% 순으로 나타남
  - 주당 평균 종사시간은 전체 1.97시간, 남성 1.68시간, 여성 2.19시간임

<표 22> 가구 내 경제활동 유형

	전체(명)		남자(명)		여자(명)	
		%		%		%
텃밭가꾸기	9,763,174	31.5	3,945,792	30.6	5,817,382	32.1
가축사육	8,067,878	26.0	3,102,531	24.0	4,965,347	27.4
딸감구하기	6,532,524	21.1	3,543,728	27.5	2,988,796	16.5
물길기	3,875,347	12.5	1,221,185	9.5	2,654,162	14.7
기타	2,773,933	8.9	1,097,788	8.5	1,676,145	9.3
계	31,012,856	100.0	12,911,024	100.0	18,101,832	100.0

주 : 복수 응답(최대 6개)임

## 8. 보건 및 건강상태(2008)

시각, 청각, 보행, 기억력 등에서의 장애율이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보행에서 더 차이가 남

\* 북한의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는 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

- 시각장애는 여자가 2.7%로 남자(2.1%)보다 출현율이 높았음
  - 50-59세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60-69세는 남자 8.6%, 여자 8.4% 정도, 70-79세는 남자 14.7%, 여자 11.8% 정도, 80세 이상 남자는 23.8%, 그리고 80세 이상 여자는 13.9%가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
  - 심한 장애자는 70-79세는 남자는 2.2%, 여자는 1.9% 정도, 80세 이상의 남자는 10.4% 정도, 80세 이상 여자는 3.8% 정도였음
  - 대부분의 장애자는 “약간 장애”인 것으로 조사
- 청각 장애율은 남자는 1.4%, 여자는 2.0%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60-69세부터 두드러지게 높아짐
  - 대부분의 장애자가 “약간 장애”인 것으로 조사
- 걷기(및 층계 오르기) 장애는 남자는 2.0%, 여자는 2.9%의 출현율을 보임
  - 50-59세부터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80세 이상은 전체 패턴과는 달리 남자가 23.1%로 여자(19.4%)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임
  - 전체적으로 다른 장애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임
- 기억장애는 남자가 1.2%, 여자는 1.9%로 나타나 시각, 청각, 보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율을 보임
  - 60-69세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함

<표 23> 활동 장애

(단위 : 명, %)

		전체	5-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시력 (남자)	없음	97.9	99.9	99.8	99.6	99.4	98.6	95.7	91.4	85.3	76.2
	약한 장애	1.8	0.1	0.1	0.3	0.4	1.2	3.9	7.8	12.5	13.4
	심한 장애	0.3	0.0	0.0	0.1	0.1	0.2	0.4	0.8	2.1	9.9
	아주 심한 장애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시력 (여자)	없음	97.3	99.9	99.8	99.7	99.4	98.4	95.1	91.6	88.2	86.1
	약한 장애	2.3	0.0	0.1	0.2	0.5	1.4	4.5	7.5	9.8	10.1
	심한 장애	0.3	0.0	0.0	0.0	0.1	0.2	0.4	0.8	1.8	3.5
	아주 심한 장애	0.0	0.0	0.0	0.0	0.0	0.0	0.0	0.1	0.1	0.3
청력 (남자)	없음	98.6	99.9	99.8	99.7	99.7	99.3	98.1	93.8	88.3	78.7
	약한 장애	1.1	0.0	0.1	0.2	0.3	0.5	1.6	5.4	9.3	14.4
	심한 장애	0.2	0.0	0.0	0.1	0.1	0.1	0.2	0.7	2.2	6.3
	아주 심한 장애	0.0	0.0	0.0	0.0	0.0	0.0	0.0	0.1	0.2	0.7
청력 (여자)	없음	98.0	99.9	99.9	99.8	99.7	99.3	97.7	93.4	87.8	83.4
	약한 장애	1.7	0.0	0.1	0.1	0.2	0.6	2.0	5.9	10.1	11.3
	심한 장애	0.3	0.0	0.0	0.0	0.0	0.1	0.2	0.6	2.0	4.6
	아주 심한 장애	0.0	0.0	0.0	0.0	0.0	0.0	0.0	0.1	0.2	0.6
걷기 (남자)	없음	98.0	99.9	99.8	99.5	99.3	98.6	96.8	91.9	86.5	76.9
	약한 장애	1.4	0.1	0.1	0.3	0.5	0.9	2.4	6.5	9.8	14.2
	심한 장애	0.5	0.0	0.1	0.2	0.2	0.4	0.7	1.5	3.5	8.0
	아주 심한 장애	0.1	0.0	0.0	0.0	0.0	0.0	0.1	0.1	0.3	0.9
걷기 (여자)	없음	97.1	99.9	99.8	99.7	99.4	98.6	95.9	90.4	84.6	80.6
	약한 장애	2.3	0.1	0.1	0.2	0.4	1.0	3.4	7.9	11.5	11.8
	심한 장애	0.6	0.0	0.0	0.1	0.1	0.3	0.7	1.6	3.7	6.9
	아주 심한 장애	0.1	0.0	0.0	0.0	0.0	0.0	0.0	0.1	0.3	0.7
기억 (남자)	없음	98.8	99.9	99.9	99.7	99.7	99.4	98.4	94.8	90.7	82.6
	약한 장애	1.0	0.1	0.1	0.2	0.2	0.5	1.4	4.6	7.7	12.4
	심한 장애	0.2	0.0	0.0	0.1	0.1	0.1	0.2	0.6	1.5	4.4
	아주 심한 장애	0.0	0.0	0.0	0.0	0.0	0.0	0.0	0.1	0.2	0.6
기억 (여자)	없음	98.1	99.9	99.9	99.8	99.7	99.4	97.7	93.8	89.2	85.5
	약한 장애	1.6	0.1	0.1	0.1	0.2	0.5	2.1	5.6	8.9	10.2
	심한 장애	0.3	0.0	0.0	0.0	0.1	0.1	0.2	0.5	1.6	3.7
	아주 심한 장애	0.0	0.0	0.0	0.0	0.0	0.0	0.0	0.1	0.2	0.6

## 9. 인구분포, 도시화, 인구이동(1925~2008)

### 가. 행정구역의 변천

북한의 행정구역 체제는 1개 직할시, 9개 도(3개 특급시 포함)로 구성

○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직할시, 도, 시, 군, 구역, 읍, 동, 리, 노동자구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 2008년 10월 1일 현재, 직할시는 하나 뿐이었고, 특급시는 남포, 개성, 나선 3개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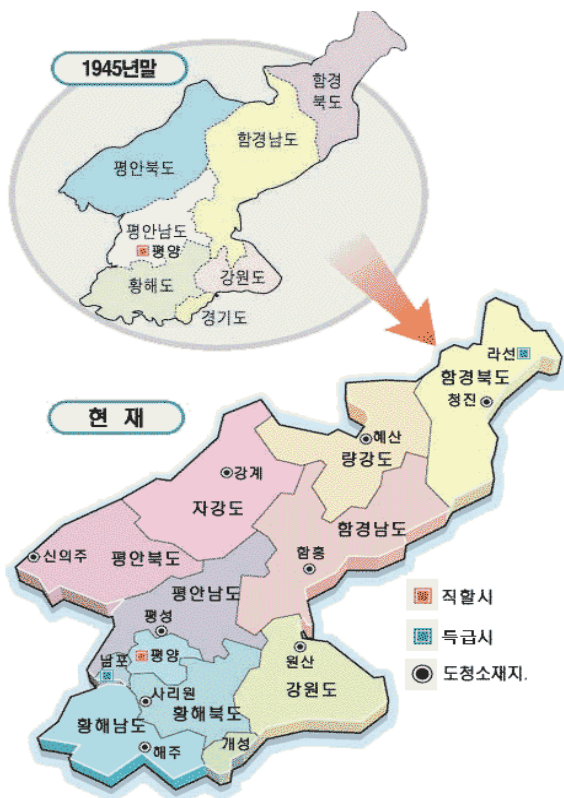
\* 2011년 3월 현재는 1 직할시(평양), 2특별시(나선, 남포), 9도가 있음

- 특급시는 남한의 광역시에 상당하지만, 남한과는 달리 도 단위 행정구역의 관할에 속하며, 특급시와 (일반)시는 구역으로 세분되고, 도 단위 행정구역의 직접적인 관할대상인 구 또는 지구가 있음

\* 북한은 1945년 광복 이후 60여 차례 행정구역을 변경

\* 2010년 평양시 남쪽 일부지역(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을 황해북도로 조정하는 개편을 한 것으로 알려짐

<그림 10> 북한의 시도 행정구역:  
1945년말과 2008년의 비교



<그림 11> 평양 19개 구역 및  
4개 군의 지도



## 나. 지역별 인구분포

10개 시·도 중 평안남도의 인구(405만명)가 17.4%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평양시가 326만명으로 13.9%를 차지

\* 1993년 및 2008년 센서스의 행정구역별 인구에는 집계생활단위인구(특히 군 병력)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규모는 1993년과 2008년에 각각 69.2만명과 70.2만명임

○ 2008. 10. 1 현재 북한의 인구는 평안남도(405만명)가 전체 인구(2,335만명)의 1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양시(326만명)임

- 평양과 평남을 합한 인구는 73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1.3%이며, 1993년보다 97만명(15.3%)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3이 이 지역에 거주
-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양강도(72만명)로 전체인구의 3.1%에 해당
- 시·도별 순위는 평안남도(405만명), 평양시(326만명), 함경남도(307만명), 평안북도(273만명) 순임

○ 2008년 평양시의 면적은 북한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

\*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평양시 면적은 200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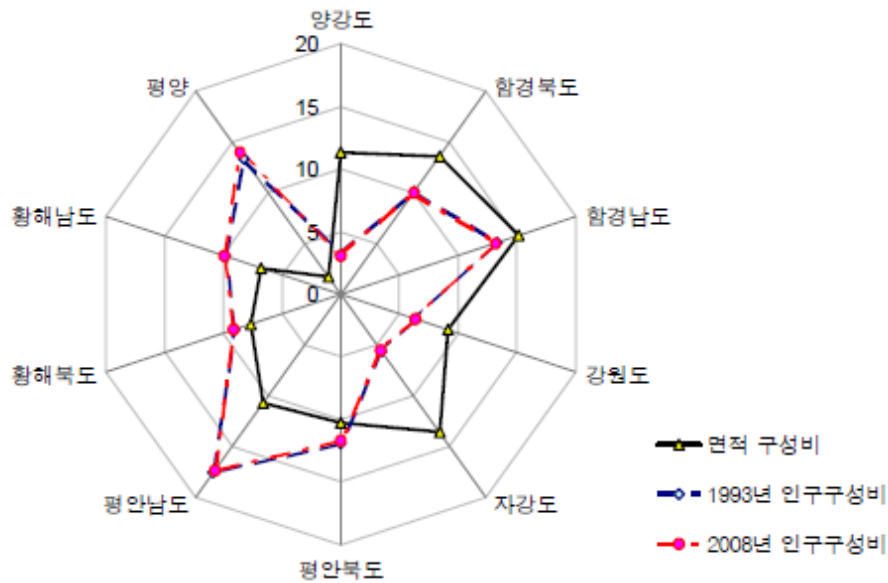
- 평양의 인구밀도는 1993년과 2008년에 km<sup>2</sup>당 각각 1,297명과 1,540명임

\* 중국 베이징은 2010년 현재 km<sup>2</sup>당 1,300명, 서울은 2010년 현재 17,000명

<표 24> 북한의 시도 행정구역별 인구특성: 1993년과 2008년

시도 행정구역	면적		1993년 인구			2008년 인구		
	평방 킬로미터	구성비 (%)	인구 (1,000)	구성비 (%)*	인구밀도	인구 (1,000)	구성비 (%)*	인구밀도
양강도	13,888	11.3	638	3.1	46.0	719	3.1	51.8
함경북도	16,745	13.6	2,061	10.0	123.1	2,327	10.0	139.0
함경남도	18,558	15.1	2,732	13.3	147.2	3,066	13.1	165.2
강원도	11,150	9.1	1,304	6.4	117.0	1,478	6.3	132.5
자강도	16,764	13.7	1,153	5.6	68.8	1,300	5.6	77.5
평안북도	12,575	10.2	2,437	11.9	193.8	2,729	11.7	217.0
평안남도	13,212	10.8	3,598	17.5	272.3	4,052	17.4	306.7
황해북도	9,463	7.7	1,846	9.0	195.1	2,114	9.1	223.4
황해남도	8,294	6.8	2,011	9.8	242.5	2,310	9.9	278.6
평양시	2,113	1.7	2,741	13.4	1297.3	3,255	13.9	1540.6
미상			692			702		
합계(미상 제외) (a)		전체:	20,522		167.2	23,350		190.2
합계(미상 포함) (b)		122,762	21,214		172.8	24,052		195.9
(a)/(b) *100 (%)			96.7			97.1		

<그림 12> 행정구역별 면적과 인구의 비중: 1993년과 2008년



#### 다. 도시화

2008년 북한의 도시화율은 60.6%

\*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주거이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시화의 방향이나 속도 역시 국가의 계획경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

○ 북한에서는 분단 이후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중공업 우선 정책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진행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증가율이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화의 속도도 현격하게 감소

○ 북한의 도시인구는 1953년에 15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에는 438만명, 1980년 984만명, 2008년에는 1,416만명으로 대폭 증가

-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 비중도 1953년 17.7%에서 1960년 40.6%, 1980년 56.9%, 2008년에는 60.6%로 증가

○ 북한의 도시인구는 1993년 센서스에서 1,250만명으로 “불특정” 인구를 제외한 총인구 중에서 도시인구의 비율은 60.9%, 2008년 센서스에서는 60.6%(1,416만명)로 집계

<표 25>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1953~2008년

연도	인구 (1,000명)			도시인구 비율(%)	도시/농촌별 인구증가율(%)		
	도시	농촌	북한 전체		도시인구	농촌인구	총인구
1953	1,503	6,988	8,491	17.7			
1956	2,174	6,645	9,359	23.2	12.3	-1.7	3.2
1960	4,380	6,409	10,789	40.6	17.5	-0.9	3.6
1965	5,894	6,514	12,408	47.5	5.9	0.3	2.8
1970	7,924	6,695	14,619	54.2	5.9	0.6	3.3
1975	9,064	6,922	15,986	56.7	2.7	0.7	1.8
1980	9,843	7,455	17,298	56.9	1.7	1.5	1.58
1982	10,362	7,412	17,774	58.3	2.6	-0.3	1.4
1985	11,087	7,705	18,792	59.0	2.3	1.3	1.9
1986	11,265	7,795	19,060	59.1	1.6	1.2	1.4
1987	11,530	7,816	19,346	59.6	2.3	0.3	1.5
1993	12,501	8,021	20,522	60.9	1.4	0.4	1.0
2008	14,155	9,194	23,350	60.6	0.8	0.9	0.9

주: 1) 군 병력을 포함하는 집체생활단위의 “불특정” 인구는 이 표에서 제외되었음. 1987년까지의 자료는 북한의 등록인구의 결과이고, 1993년과 2008년은 인구센서스 결과

2) 이 표에서 도시인구는 행정구역상의 시부인구가 아니라, 시부 경계 안에서 비농업 부문의 인구를 의미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곧 시부에 거주하면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농촌인구로 분류

3) 도시·농촌별 인구증가율은 1987년까지는 연말기준으로 계산하고, 1993년 센서스는 1993년 12월 31일, 2008년 센서스는 2008년 10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인구증가율을 계산

자료: Eberstadt and Banister(1992), (조선)중앙통계국(1994, 2009).

- 등록인구 통계를 통하여 추정된 1987년 도시인구의 비율이 59.6%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인구의 도시집중이 급속하게 둔화
- 북한의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1987~1993년과 1993~2008년의 기간에 각각 1.4%와 0.8%로 추정되는데, 비록 그 차이는 미세하지만, 1993~2008년의 기간에는 농촌인구의 연평균 증가율보다도 낮았음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인구분포와 도시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기근
  - \* 자연재해로 식량생산 악화 : 냉해(93, 98), 대홍수(95, 96), 고온 및 가뭄(97, 99)
- 중국 인접 여부나 도시·농촌 간 식량 사정의 차이로 초과사망이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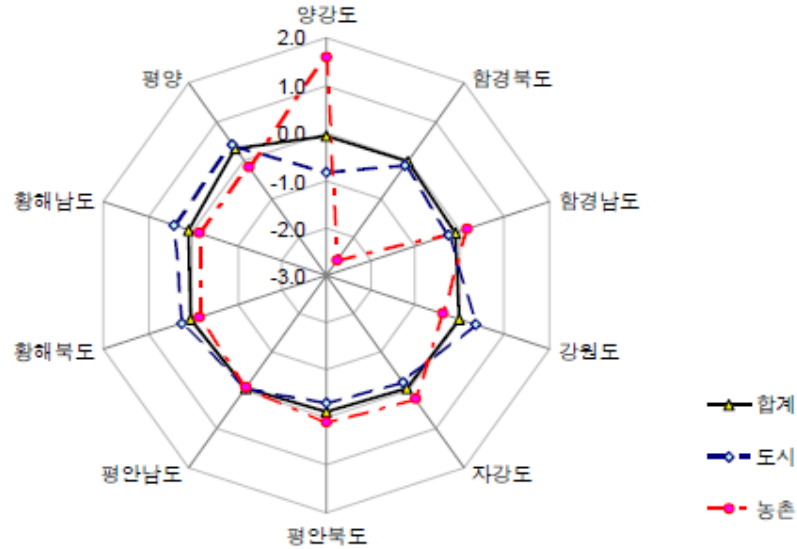
- 지역별 인구증가율 편차는 북한이 거주이동이 제한된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생률 및 사망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기근이 출생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높이는 역할
  - 평양은 지난 15년 동안 연간 인구증가율이 대단히 높아서 기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행정구역의 도시화 수준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편차를 보이는데, 도시화 비율과 인구증가율이 반비례 : 농촌이 도시보다 식량사정이 좋아 피해가 적음

- 도시화가 낮은 강원도, 황해남도, 황해북도는 인구증가율이 높음
-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는 평안남도나 함경북도보다는 더 심각한 기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임
- 함경북도는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에 접근하기 쉬워 국경 무역 혜택
- 평안남도는 평양직할시의 주변으로 기근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
- 평안북도는 압록강의 깊은 수심으로 인하여 중국 월경에 제한

<표 26> 북한의 행정구역별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993~2008년

행정구역	1993년 인구			2008년의 인구			1993~2008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1,000)	도시 (1,000)	농촌 (1,000)	전체 (1,000)	도시 (1,000)	농촌 (1,000)	전체 (%)	도시 (%)	농촌 (%)
북한(평양포함)	20,522	12,501	8,021	23,350	14,155	9,194	0.9	0.8	0.9
북한(평양제외)	17,781	10,146	7,635	20,095	11,332	8,763	0.8	0.7	0.9
양강도	638	460	178	719	465	255	0.8	0.1	2.4
함경북도	2,061	1,483	578	2,327	1,646	681	0.8	0.7	1.1
함경남도	2,732	1,659	1,074	3,066	1,811	1,255	0.8	0.6	1.0
강원도	1,304	611	694	1,478	726	752	0.8	1.2	0.5
자강도	1,153	753	399	1,300	828	472	0.8	0.6	1.1
평안북도	2,437	1,322	1,115	2,729	1,432	1,297	0.8	0.5	1.0
평안남도	3,598	2,341	1,256	4,052	2,630	1,422	0.8	0.8	0.8
황해북도	1,846	831	1,016	2,114	973	1,141	0.9	1.1	0.8
황해남도	2,011	687	1,324	2,310	822	1,489	0.9	1.2	0.8
평양시	2,741	2,355	386	3,255	2,823	432	1.2	1.2	0.7

<그림 13> 시도별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993~2008년



주: 지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전국 평균값으로부터의 편차로 표기

## 라. 도시체계

- 분단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도시화 과정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압축

- ① 광복 이후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부지향적 발전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해안도시보다 내륙도시를 개발하는데 주력 : 평성, 구성, 희천, 만포, 강계, 혜산 등
- ② 새로운 도시의 육성전략에 따른 일부 도시의 급속한 성장: 단천, 개천, 순천, 덕천, 안주, 혜산, 강계, 만포, 희천 등
- ③ 전통적인 대도시에서도 도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꾸준한 인구성장 : 평양, 함흥, 청진, 남포, 신의주, 원산, 사리원 등
- ④ 북한의 도시들은 인구규모가 대체로 작은 경향 : 2008년 현재 북한의 27개 도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평양뿐이며, 함흥과 청진이 인구 50만~99만명의 규모
- ⑤ 종주도시 즉 평양시의 편향적인 성장 : 2008년 현재 평양의 인구규모는 함흥, 청진, 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천 등 2위부터 8위까지의 도시들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10여 만 명이 더 많음
- ⑥ 평양 주변 위성도시의 급속한 성장 : 남포, 순천, 평성, 송림 등 위성도시를 합한 수도권 인구는 433.3만명으로 전체 도시인구의 30.6%, 만약 평안남도의 덕천과 안주를 위성도시로 포함시키면 비중은 34.0%가 됨

<표 27> 북한 도시의 순위체계: 1925~2008년

순위	1925	1930	1935	1940	1944	1967	1972	1982	1986	1991	1993	2008	(천명)
1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3,255
2	원산	개성	개성	청진	청진	함흥	함흥	청진	남포	함흥	남포	함흥	669
3	진남포	함흥	원산	개성	신의주	원산	청진	함흥	함흥	남포	함흥	청진	667
4	청진	원산	함흥	원산	원산	청진	개성	남포	청진	청진	청진	남포	367
5	신의주	진남포	진남포	함흥	함흥	신의주	신의주	원산	순천	순천	개성	원산	363
6		신의주	청진	진남포	해주	강계	남포	개성	개성	개성	신의주	신의주	359
7		청진	신의주	해주	진남포	개성	원산	신의주	단천	단천	원산	단천	346
8				신의주	개성	남포	해주	평성	원산	신의주	평성	개천	320
9				나진	성진	해주	김책	해주	신의주	김책	사리원	개성 사리원	308
10					나진	김책	강계	사리원	사리원	원산	해주	순천	297
11						사리원	사리원	강계	해주 김책	사리원	강계	평성	284
12						혜산	평성	신포 구성	강계 평성	강계 평성	혜산	해주	273
13						송림	구성	구성 혜산	-	-	-	강계	252

주: 1) 개성은 38선 이남에 위치하여 6.25 전쟁 이전에는 남한에 속했으나, 6·25전쟁 후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남북경계가 바뀐 이후부터 북한 지역에 포함

2) 한국전쟁 때 전사한 김책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출생지인 성진을 김책시로 개명.

3) 북한의 2008년 센서스에는 순위표에 기록되지 않은 도시들도 있는데, 안주(24.1만명), 덕천(23.7만명), 김책(20.7만명), 라선(19.7만명), 구성(19.7만명), 혜산(19.3만명), 정주(18.9만명), 회천(16.8만명), 신포(15.3만명), 송림(12.9만명), 문천(12.3만명), 만포(11.7만명) 등의 도시가 포괄적으로 등재.

자료: 1991년 이전 김두섭(1993); 1993년과 2008년은 (조선)중앙통계국(1994, 2009)에서 인용

## 마. 인구이동의 규모와 연령별 이동률

○ 북한의 2008년 센서스 자료와 남한의 2005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을 비교하면, 남한이 약 10배 정도 빈번하게 이동

- 북한은 2008년 74.5만명(남자 31.9만명, 여자 42.7만명)이 지난 5년 동안에 시군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여 총인구 중에서 3.5%를 차지
- 남한은 2005년 현재 지난 5년 동안 시군 경계를 넘어서 이동한 사람들이 1,456만명(남자 716만명, 여자 740만명)으로 총인구의 33.1%에 해당

○ 북한의 “공민등록”과 남한의 “주민등록”에 의거하여 파악된 1980~1987년의 인구이동 성향은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

- 북한의 공민등록 이동인구의 성비는 1980년과 1982년에 각각 89.3과 87.7이었고, 그 후에도 91을 넘지 않아 여자가 이동성향이 더 강함
- 반면, 남한은 주민등록 상 남자가 여자보다 이동성향이 강하여 이동인구 성비가 1982년에 106.6으로 집계되었고, 1987년까지 103.0 이상 유지

<표 28> 북한과 남한의 이동인구 규모: 1998-2008년

	북한				남한			
	이동인구 (1,000명)			총인구에 대한 비중(%)	이동인구 (1,000명)			총인구에 대한 비중(%)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1980	434	486	920	5.3	4,275	3,984	8,259	21.9
1982	433	494	927	5.2	4,446	4,170	8,616	22.1
1985	418	464	882	4.7	4,439	4,240	8,679	21.4
1986	474	523	997	5.2	4,430	4,230	8,660	21.3
1987	540	594	1,134	5.9	4,724	4,585	9,309	22.6
2008 <sup>2)</sup> (2005)	319	427	746	3.5	7,155	7,401	14,556	33.1

주: 1) 1980~1987년의 이동자료에서, 북한의 이동은 리(동, 노동자구)의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남한의 이동은 군 또는 시의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함.

2) 북한은 2008년 센서스, 남한은 2005년 센서스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음. 이 두 자료 모두 이동은 센서스 실시 이전 5년 동안 군의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함.

자료: Eberstadt and Banister(1992); 김두섭(1995); (조선)중앙통계국(2009); 통계청(2010a).

- 남자는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16세가 포함된 15-19세에서 인구이동률이 가장 높고, 그 후에는 계속 감소(30-34세는 약간 상승)하여 55-59세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퇴직 연령인 60세 이후부터는 약간씩 상승
  - 여자의 이동률은 대체로 25-29세 집단에서 최고점에 도달 한 후 계속 감소하다가 60세 이후부터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
- 연령별 인구이동량의 성비는 25-29세에서 최저점인 43.5에 도달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50-54세에 84.9의 수준까지 상승
  - 그 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이동인구의 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최고령인 80세 이상에서는 18.2 수준에 이르게 됨

<표 29> 성 및 연령별 총인구, 이동인구와 인구이동률: 2008년

	총인구 (1,000명)				이동인구 (1,000명)				인구이동률 (%)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남녀합	남자	여자
5-9	1,846.8	943.0	903.7	104.3	746.7	319.3	427.4	104.4	3.4	3.4	3.4
10-14	2,021.4	1,035.3	986.1	105.0	63.5	32.4	31.1	107.0	2.8	2.8	2.8
15-19	1,863.0	884.0	979.0	90.3	56.1	29.0	27.1	106.2	5.8	6.3	5.4
20-24	1,441.3	555.9	885.4	62.8	108.2	55.7	52.5	60.6	4.7	4.6	4.8
25-29	1,649.8	801.2	848.7	94.4	67.7	25.5	42.1	43.5	6.1	3.8	8.3
30-34	1,672.6	845.9	826.6	102.3	101.4	30.7	70.6	73.5	5.3	4.4	6.2
35-39	2,207.1	1,110.8	1,096.3	101.3	88.5	37.5	51.0	79.9	3.9	3.4	4.4
40-44	2,010.3	1,000.0	1,010.2	99.0	85.9	38.2	47.8	73.9	3.0	2.5	3.4
45-49	1,556.3	762.9	793.4	96.2	59.4	25.2	34.2	75.3	2.3	2.0	2.6
50-54	1,314.1	636.8	677.3	94.0	35.6	15.3	20.3	84.9	1.6	1.5	1.7
55-59	902.4	423.2	479.3	88.3	21.4	9.8	11.6	62.2	1.3	1.0	1.5
60-64	1,058.1	476.6	581.5	82.0	11.4	4.4	7.0	63.5	1.3	1.2	1.5
65-69	913.3	379.4	533.8	71.1	14.2	5.5	8.7	56.2	1.5	1.3	1.7
70-74	662.6	228.3	434.3	52.6	13.8	5.0	8.8	43.4	1.6	1.4	1.7
75-79	335.5	79.2	256.2	30.9	10.9	3.3	7.6	27.4	1.7	1.6	1.8
80 +	185.2	24.7	160.5	15.4	5.8	1.2	4.6	18.2	1.6	1.9	1.6
합계	21,639.8	10,187.3	11,452.5	89.0	746.7	319.3	427.4	74.7	3.5	3.1	3.7

- 시도별로 성별 인구이동률을 보면, 북한 전체의 평균값(3.5%)보다 높은 인구이동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4.3%) 뿐이고, 평양과 함경북도 각각 3.1%의 인구이동률을 보임
- 북한 전체의 남자 평균 이동률은 3.1%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구이동률을 보이는 행정구역은 역시 강원도뿐으로 3.7%로 나타남
  - 남자의 인구이동률이 낮은 행정구역은 함경남도(1.6%), 자강도(1.7%), 평안북도(1.9%), 황해남도(2.0%)이며, 평양도 2.4%로 집계되어 시군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
- 여자의 경우는 북한 전체의 평균 이동률이 3.7%이며, 강원도가 4.8%, 평양이 3.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며, 자강도는 여자의 인구이동률이 1.6%로서 북한의 10개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낮은 이동률을 기록

<표 30> 시도 행정구역별 총인구, 이동인구와 인구이동률: 2008년

	총인구 (1,000명)				이동인구 (1,000명)				인구이동률 (%)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남녀합	남자	여자
북한전체	21,639.8	10,187.3	11,452.5	89.0	746.7	319.3	427.4	74.7	3.5	3.1	3.7
양강도	1,846.8	943.0	903.7	104.3	303.6	8.6	10.9	79.7	2.9	2.8	3.1
함경북도	2,021.4	1,035.3	986.1	105.0	984.8	28.8	38.1	75.7	3.1	2.9	3.3
함경남도	1,863.0	884.0	979.0	90.3	1,307.1	21.4	33.5	64.0	1.9	1.6	2.2
강원도	1,441.3	555.9	885.4	62.8	615.5	23.9	34.8	68.8	4.3	3.7	4.8
자강도	1,649.8	801.2	848.7	94.4	557.7	9.7	10.0	97.5	1.6	1.7	1.6
평안북도	1,672.6	845.9	826.6	102.3	1,163.8	22.4	32.2	69.4	2.2	1.9	2.4
평안남도	2,207.1	1,110.8	1,096.3	101.3	1,726.9	50.4	61.2	82.2	3.0	2.8	3.1
황해북도	2,010.3	1,000.0	1,010.2	99.0	900.7	24.1	26.1	92.4	2.6	2.6	2.5
황해남도	1,556.3	762.9	793.4	96.2	985.9	20.3	31.0	65.7	2.4	2.0	2.7
평양시	1,314.1	636.8	677.3	94.0	60.6	1.5	2.4	60.5	3.1	2.4	3.7

이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평양과 주변의 평안남북도가 목적지

- 도 단위 경계를 넘어선 인구이동을 목적지 기준으로 볼 때 평양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6.6만명의 전입자가 있었으며, 출발지를 기준으로 볼 때 전출자는 2.4만명으로 4.2만명이 순전입
  - 자강도는 전입자 6천명, 전출자 1만으로 4천명의 순전출이 있었으며, 황해북도는 전입자 2만명, 전출자 2.8만으로 순전출이 8천에 이르렀음
- 북한의 도 단위 인구이동에서 24.1만명의 이동목적지는 평양 27.6%, 평안남도 19.6%의 순이었음
  - 강원도가 이동인구의 10.4%를 흡수한 것도 관심
- 출발지를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과 같은 거점지역은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
  - 전반적으로 전출 이동자의 상당 부분이 평양과 평안남도로 향하는 경향
  - 특히,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이동인구 중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중이 각각 46.0%와 33.6%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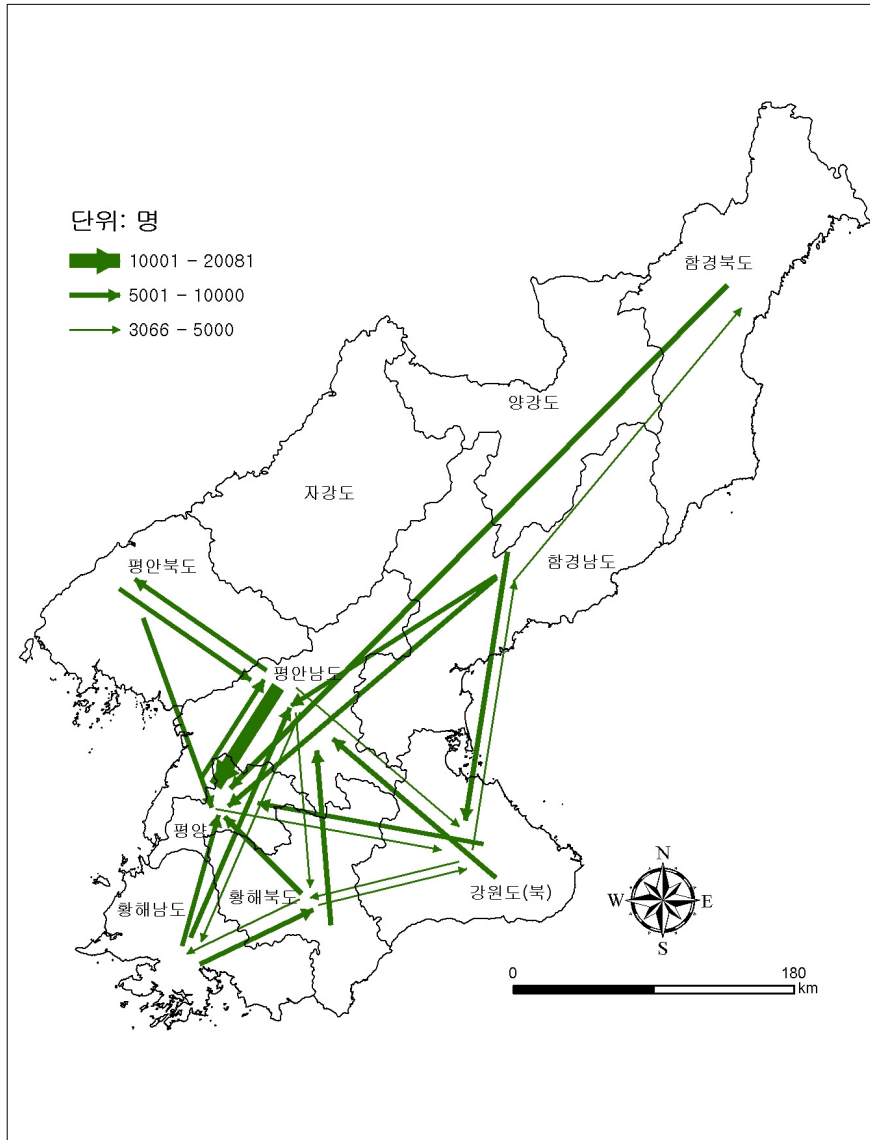
○ 목적지를 기준으로 보면, 행정구역별로 수도 평양에 대한 접근성에 큰 격차가 있음

- 평양 전입자 중 평안남도는 30.2%, 평안북도나 황해북도는 13%대인 반면 양강도와 자강도 출신은 각각 2.7%와 4.4%에 불과

<표 31> 시도 행정구역간 인구이동의 출발지와 목적지: 2008년

		출발지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목적지	양강	0	1,144	1,612	789	279	428	768	429	416	350	6,215
	함북	1,792	0	3,584	2,639	480	1,270	2,078	1,476	1,232	1,674	16,225
	함남	1,253	2,102	0	4,370	731	1,129	2,280	1,426	1,135	1,555	15,981
	강원	893	2,433	6,225	0	745	2,170	3,845	3,403	1,809	3,429	24,952
	자강	375	322	808	662	0	1,182	1,371	557	420	607	6,304
	평북	653	1,059	2,005	2,716	1,414	0	6,688	2,317	1,586	2,785	21,223
	평남	2,074	2,843	5,864	5,891	2,341	7,491	0	5,385	5,641	9,677	47,207
	황북	647	884	1,585	3,114	606	2,074	3,066	0	5,431	2,791	20,198
	황남	529	976	1,705	2,206	570	1,402	3,462	3,838	0	1,541	16,229
	평양	1,766	5,082	7,361	5,664	2,937	8,658	20,081	9,018	5,931	0	66,498
합계	9,982	16,845	30,749	28,051	10,103	25,804	43,639	27,849	23,601	24,409	241,032	
		출발지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목적지 (%)	양강	0.0	6.8	5.2	2.8	2.8	1.7	1.8	1.5	1.8	1.4	2.6
	함북	18.0	0.0	11.7	9.4	4.8	4.9	4.8	5.3	5.2	6.9	6.7
	함남	12.6	12.5	0.0	15.6	7.2	4.4	5.2	5.1	4.8	6.4	6.6
	강원	8.9	14.4	20.2	0.0	7.4	8.4	8.8	12.2	7.7	14.0	10.4
	자강	3.8	1.9	2.6	2.4	0.0	4.6	3.1	2.0	1.8	2.5	2.6
	평북	6.5	6.3	6.5	9.7	14.0	0.0	15.3	8.3	6.7	11.4	8.8
	평남	20.8	16.9	19.1	21.0	23.2	29.0	0.0	19.3	23.9	39.6	19.6
	황북	6.5	5.2	5.2	11.1	6.0	8.0	7.0	0.0	23.0	11.4	8.4
	황남	5.3	5.8	5.5	7.9	5.6	5.4	7.9	13.8	0.0	6.3	6.7
	평양	17.7	30.2	23.9	20.2	29.1	33.6	46.0	32.4	25.1	0.0	2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발지 (%)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목적지	양강	0.0	18.4	25.9	12.7	4.5	6.9	12.4	6.9	6.7	5.6	100.0
	함북	11.0	0.0	22.1	16.3	3.0	7.8	12.8	9.1	7.6	10.3	100.0
	함남	7.8	13.2	0.0	27.3	4.6	7.1	14.3	8.9	7.1	9.7	100.0
	강원	3.6	9.8	24.9	0.0	3.0	8.7	15.4	13.6	7.2	13.7	100.0
	자강	5.9	5.1	12.8	10.5	0.0	18.8	21.7	8.8	6.7	9.6	100.0
	평북	3.1	5.0	9.4	12.8	6.7	0.0	31.5	10.9	7.5	13.1	100.0
	평남	4.4	6.0	12.4	12.5	5.0	15.9	0.0	11.4	11.9	20.5	100.0
	황북	3.2	4.4	7.8	15.4	3.0	10.3	15.2	0.0	26.9	13.8	100.0
	황남	3.3	6.0	10.5	13.6	3.5	8.6	21.3	23.6	0.0	9.5	100.0
	평양	2.7	7.6	11.1	8.5	4.4	13.0	30.2	13.6	8.9	0.0	100.0
합계	4.1	7.0	12.8	11.6	4.2	10.7	18.1	11.6	9.8	10.1	100.0	

<그림 14> 북한의 시도간 인구이동 흐름



주 : 3,000명 이상의 인구이동 흐름을 지도화함  
 출처 : 통계청 내부 분석자료

## 바. 현거주지와 등록주소의 불일치

\* 북한은 1946년 이후 공민등록법을 제정하고, 모든 주민은 현거주지에 공민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민등록법의 제4조에는 “공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일, 출생지, 거주지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공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군 병력 등을 제외한 총인구 2,163.9만명 중에서, 현거주지 주소가 공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35.2만명이었으며 그 비율은 1.6%임
  - 불일치율을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1.3%, 여자는 1.9%로 나타남
  -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평양으로 4.4%(남자 3.8%, 여자 5.0%)임
  - 1990년대에 흉년,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탈북자나 식량난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자강도의 경우는 불일치율이 0.5%의 낮은 수준

<표 32> 행정구역별 현거주지와 등록 주소의 불일치 인구의 규모와 비율: 2008년

	총인구 (1,000명)			현거주지와 등록 주소의 불일치 인구(1,000명)			불일치 인구의 비율 (%)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북한 전체	21,639.8	10,187.3	11,452.5	352.3	136.9	215.5	1.6	1.3	1.9
양강도	667.3	312.2	355.1	11.9	4.9	7.1	1.8	1.6	2.0
함경북도	2,157.5	1,013.6	1,143.9	14.9	5.6	9.4	0.7	0.6	0.8
함경남도	2,838.8	1,328.5	1,510.3	21.4	8.0	13.3	0.8	0.6	0.9
강원도	1,368.9	639.4	729.5	29.6	11.6	18.0	2.2	1.8	2.5
자강도	1,203.2	567.5	635.7	6.3	2.5	3.8	0.5	0.4	0.6
평안북도	2,522.8	1,186.2	1,336.6	33.1	12.4	20.7	1.3	1.0	1.6
평안남도	3,753.9	1,777.3	1,976.7	56.4	21.1	35.3	1.5	1.2	1.8
황해북도	1,960.1	924.8	1,035.3	16.7	6.7	10.0	0.9	0.7	1.0
황해남도	2,144.7	1,006.2	1,138.5	29.0	10.5	18.5	1.4	1.1	1.6
평양시	3,022.6	1,431.5	1,591.1	133.1	53.7	79.4	4.4	3.8	5.0

## Ⅱ. 북한의 가구 및 주택

### 1. 가구 유형(2008)

핵가족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긴 하지만 확대가족가구가 여전히 지배적

- 2008년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일반가구는 588.7만 가구로, 1993년 센서스의 일반가구 480.2만 가구보다 100만 가구 이상이 증가
  - 두 센서스의 기간(1993-2008년) 북한 전체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식량배급제도의 기능이 상실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구분열(household fission)이 빠른 속도로 진행
- 일반가구의 유형은 핵가족가구 31.5%, 확대가족가구 66.3%, 기타가구 2.2%로 구성
- 평양은 핵가족가구가 일반가구의 36.9%를 차지하여,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강원도(28.8%), 함경북도(29.1%), 평안남도(29.6%)는 낮았음

<표 33> 시도 행정구역별 일반가구의 유형별 구성: 2008년

지역	일반가구 (가구수)	핵가족가구 (%)	확대가족가구 (%)	기타 가구 (%)
북한 전체	5,887,471	31.5	66.3	2.2
양강도	183,200	32.1	65.1	2.8
함경북도	587,844	29.1	66.9	4.0
함경남도	777,207	31.7	65.9	2.4
강원도	367,938	28.8	69.1	2.2
자강도	327,412	31.3	66.5	2.2
평안북도	688,583	30.9	66.8	2.3
평안남도	1,027,727	29.6	68.2	2.2
황해북도	535,511	31.7	66.6	1.7
황해남도	578,280	31.6	66.7	1.8
평양시	813,769	36.9	61.7	1.4

### 2. 가구원 수(2008)

-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북한 전체가 3.93명으로, 지역별로 별다른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핵가족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02명으로, 평양시,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북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강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는 적음
- 확대가족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핵가족가구보다 1.4명이 많은 4.42명이고, 지역 간에 그리 큰 편차는 없음
- 기타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9명으로 지역 간에 편차가 다소 있는데, 평양시나 강원도가 평균 0.4명 정도가 많고, 함경북도나 양강도는 0.4명 정도가 적음
- \* 기타 가구는 가구 내에 친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부 다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를 의미

<표 34> 시도 행정구역 및 일반가구의 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2008년

지역	일반가구 (전체)	핵가족가구	확대가족가구	기타 가구
북한 전체	3.93	3.02	4.42	1.99
양강도	3.89	2.98	4.44	1.64
함경북도	3.93	3.15	4.41	1.56
함경남도	3.92	3.03	4.42	2.08
강원도	3.97	3.10	4.39	2.38
자강도	3.93	2.90	4.47	2.28
평안북도	3.93	2.93	4.46	2.02
평안남도	3.91	3.09	4.32	1.91
황해북도	3.90	2.99	4.38	2.11
황해남도	3.96	2.89	4.52	2.06
평양시	3.95	3.08	4.50	2.40

### 3. 가구주율(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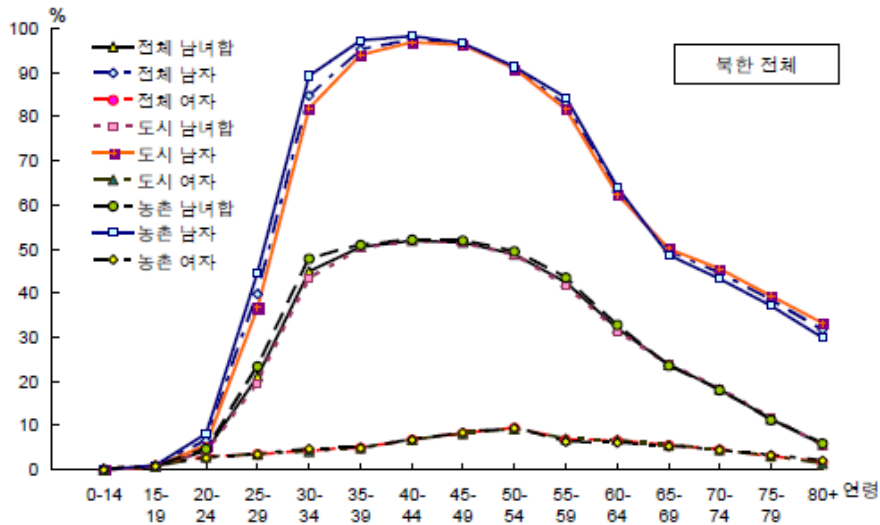
- \* 가구주율은 성 및 연령별 인구 중에서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임
- 북한의 가구주율은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25.2%이고, 남자는 48.9%, 여자는 3.9%임
- 도시와 농촌의 가구주율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음
- 다만 남자의 경우, 혼인적령기인 25-29세부터 가족형성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35-39세, 그리고 50-55세부터 고령층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약간씩 차이

-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40-44세에서 97.5%로 정점에 있게 되며, 여자는 50-54세에 9.4%로 정점

<표 35> 연령집단별 도시와 농촌의 가구주율: 2008년

	북한 전체			도시			농촌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남녀합	남자	여자
합계	25.2	48.9	3.9	25.3	48.9	4.0	25.1	48.9	3.8
0-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19	0.8	0.8	0.8	0.8	0.8	0.9	0.9	1.0	0.7
20-24	4.3	6.5	2.8	3.9	5.5	2.9	4.8	8.3	2.8
25-29	21.1	39.8	3.5	19.7	36.8	3.4	23.4	44.8	3.5
30-34	45.0	84.7	4.3	43.2	81.8	4.1	47.8	89.3	4.7
35-39	50.4	95.4	4.9	50.1	94.1	4.9	51.0	97.4	4.9
40-44	51.9	97.5	6.7	51.8	97.0	6.7	52.1	98.4	6.7
45-49	51.5	96.4	8.3	51.3	96.3	8.2	51.9	96.7	8.4
50-54	49.0	91.1	9.4	48.7	90.9	9.3	49.5	91.5	9.5
55-59	42.4	82.8	6.8	41.7	81.8	7.0	43.5	84.3	6.4
60-64	32.0	63.0	6.6	31.5	62.3	6.8	32.8	64.0	6.3
65-69	23.8	49.5	5.5	23.9	50.1	5.6	23.6	48.6	5.4
70-74	18.3	44.6	4.5	18.4	45.5	4.6	18.1	43.3	4.4
75-79	11.5	38.5	3.2	11.6	39.4	3.1	11.3	37.1	3.3
80+	5.7	31.9	1.7	5.5	33.3	1.4	6.0	29.9	2.1

<그림 15> 연령집단별 도시와 농촌의 가구주율: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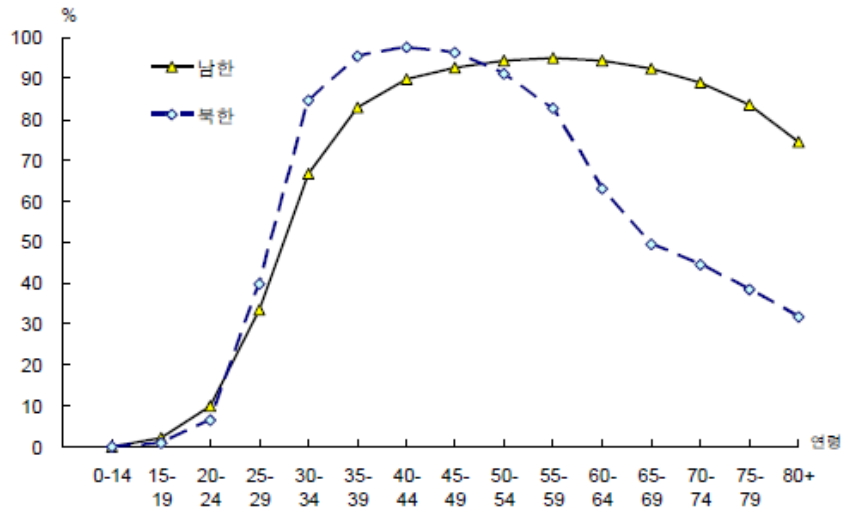
- 북한의 남자 가구주율은 30-34세부터 남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나 50세 이후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남한보다 낮아지는 패턴을 보임
  - 북한은 군복무 후 25-29세를 지나면서, 가구형성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 30-34세에 84.7%로 남한보다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가구주가 됨
  -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한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혼인해체로 독립적인 가구형성이 증가하는 반면, 북한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확대 가족가구의 일원이 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여자의 가구주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모든 연령에서 낮은 가운데, 남한은 20대 후반 및 70대 후반에 피크를 보이는 이봉(二峰), 북한은 50대 초반에 피크를 갖는 일봉(一峰) 패턴을 보임
  - 남한 여자는 혼인전 독신 가구주로 피크를 보이다가 혼인과 함께 일시적으로 줄다가, 경제활동의 증가 또는 이혼 및 사별 증가로 다시 증가하는 패턴
  - 북한은 20대 초반부터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5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표 36> 성 및 연령별 가구주율: 남한(2005년)과 북한(2008년)의 비교

	전체		남자		여자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0-14	0.1	0.0	0.1	0.0	0.1	0.0
15-19	2.2	0.8	2.1	0.8	2.4	0.8
20-24	11.4	4.3	9.9	6.5	13.1	2.8
25-29	24.5	21.1	33.4	39.8	15.4	3.5
30-34	39.5	45.0	66.7	84.7	12.0	4.3
35-39	47.9	50.4	82.9	95.4	12.6	4.9
40-44	53.1	51.9	89.8	97.5	15.5	6.7
45-49	55.9	51.5	92.6	96.4	18.8	8.3
50-54	57.5	49.0	94.3	91.1	20.6	9.4
55-59	58.7	42.4	95.1	82.8	23.2	6.8
60-64	59.1	32.0	94.4	63.0	27.1	6.6
65-69	59.2	23.8	92.4	49.5	32.1	5.5
70-74	59.1	18.3	89.0	44.6	38.3	4.5
75-79	56.2	11.5	83.7	38.5	41.2	3.2
80+	47.9	5.7	74.6	31.9	35.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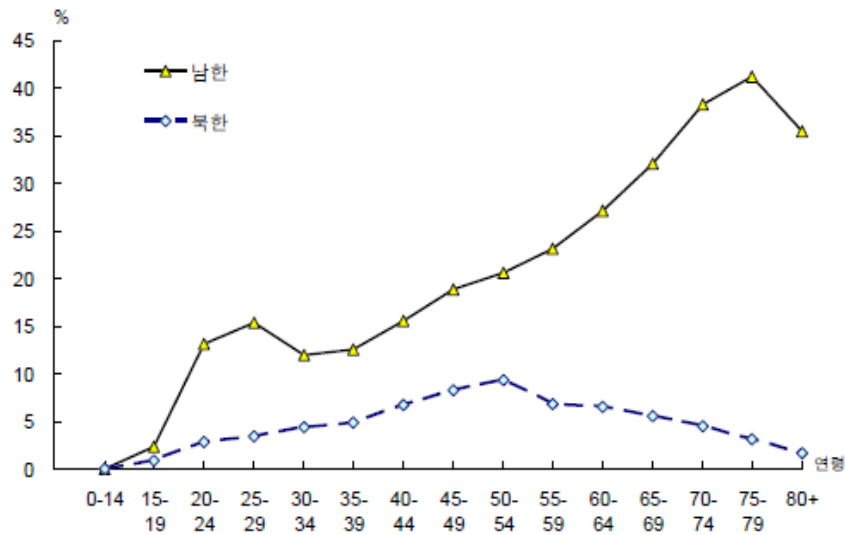
주: 남한의 가구주율은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북한은 2008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율을 계산하였음.

<그림 16> 남자의 연령별 가구주율: 남한과 북한의 비교



주: 남한의 가구주율은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북한은 2008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율을 계산하였음.

<그림 17> 여자의 연령별 가구주율: 남한과 북한의 비교



주: 남한의 가구주율은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북한은 2008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율을 계산하였음.

#### 4. 주택의 형태(2008)

- \* 거처(dwelling unit) 수를 집계하는 방법에는 살림 개념(household keeping concept)과 거주 개념(household dwelling concept)이 있음(UN, 2008)
- \* 살림 개념에서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지만, 거주 개념에서는 한 집에 한 가구만 살기 때문에 거처 수와 가구 수가 같음
- \* 남한은 '살림 개념', 북한은 '거주 개념'으로 거처 수를 파악

## 연립주택에 전체가구의 43.9%가 거주

- 전체가구의 43.9%인 2,584천 가구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이 연립주택 35.1%보다 24.3%p 높은 59.4%를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연립주택에서 49.5%가 거주
- 2005년 남한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으나 아파트 거주 비율이 41.7%로 북한에 비하여 약 2배 높음

<표 37> 주택의 형태별 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북한	전체	5,887,471 (100)	1,988,415 (33.8)	2,584,435 (43.9)	1,261,709 (21.4)	52,912 (0.9)
	도시	3,579,626 (100)	616,955 (17.2)	1,773,414 (49.5)	1,164,767 (32.5)	24,490 (0.7)
	농촌	2,307,845 (100)	1,371,460 (59.4)	811,021 (35.1)	96,942 (4.2)	28,422 (1.2)
남한 (2005년)		15,887,128 (100)	7,064,128 (44.5)	1,695,429 (10.7)	6,628,993 (41.7)	498,578 (3.1)

주 : 북한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로 구분되고, 남한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타'로 구분되어 이번 분석에서 남한의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 항목에 포함시킴

- 단독주택은 황해북도, 연립주택은 평안남도, 아파트는 평양시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38> 주택의 형태별 지역 분포

(단위 : %)

구 분	가구 수	단독주택 (100.0)	연립주택 (100.0)	아파트 (100.0)	기타 (100.0)
양강도	183,200	2.1	4.6	1.6	2.3
함경북도	587,844	7.4	13.2	7.6	6.8
함경남도	777,207	13.9	13.7	11.1	13.0
강원도	367,938	5.3	7.2	5.5	12.4
자강도	327,412	6.6	4.9	5.3	3.5
평안북도	688,583	14.8	11.0	8.2	12.5
평안남도	1,027,727	13.4	21.5	16.0	9.8
황해북도	535,511	19.3	3.8	3.8	8.0
황해남도	578,280	12.4	9.7	5.6	18.3
평양시	813,769	4.8	10.3	35.2	13.4

## 5. 주거용 연면적(2008)

75㎡ 이하의 주택에 90.5%(5,324,765 가구)의 가구가 거주

- 75㎡ 이하의 주택에 90.5%(5,325천 가구)의 가구, 100㎡ 이상의 주택에는 1.9%(113천 가구)가 거주하여 소규모 주택이 다수를 구성
  - '50~75㎡'에 속하는 주택의 거주비율이 73.5%로 대다수의 가구가 거주하였으며, '50㎡ 미만'의 주택에도 전체 가구의 17.0%가 거주
  - 2005년 남한의 경우 북한과 같이 '50~75㎡'의 주거면적 거주비율(31.1%)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주거면적 거주비율과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다름
  - '100㎡ 이상'의 경우 남한이 북한보다 9배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북한보다 약 1.2배 높은 비율을 나타냄
- '50㎡ 미만'의 주택의 경우 도시가 20.4%로 농촌(11.6%)보다 8.8%p 높게 나타난 반면, '100㎡ 이상'의 경우 농촌이 도시보다 0.5%p 높음

<표 39> 주거용 연면적별 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50㎡ 미만	50~75㎡	76~100㎡	100㎡ 이상
북한	전체	999,387 (17.0)	4,325,378 (73.5)	449,925 (7.6)	112,781 (1.9)
	도시	730,695 (20.4)	2,509,034 (70.1)	278,130 (7.8)	61,767 (1.7)
	농촌	268,692 (11.6)	1,816,344 (78.7)	171,795 (7.4)	51,014 (2.2)
남한 (2005년)		2,533,843 (20.3)	3,880,301 (31.1)	3,873,932 (31.0)	2,201,405 (17.6)

주 : 남한의 경우 주거용 연면적이 주택 단위로 조사되는 것을 반영하여 주택 수를 적용하였음

- 모든 지역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50~75㎡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강원도는 100㎡ 이상, 함경북도는 50㎡ 미만, 평안남도는 50~75㎡, 강원도와 평양시는 76~1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표 40> 지역별 연면적 분포

(단위 : %)

구 분	계	50㎡ 미만	50~75㎡	76~100㎡	100㎡ 이상
북한 전체	100.0	17.0	73.5	7.6	1.9
양강도	100.0	19.5	75.4	3.3	1.8
함경북도	100.0	20.6	71.6	6.1	1.7
함경남도	100.0	19.2	68.0	10.9	1.9
강원도	100.0	18.7	70.9	6.8	3.6
자강도	100.0	17.9	77.0	3.6	1.5
평안북도	100.0	16.9	77.2	4.6	1.4
평안남도	100.0	15.3	78.1	5.5	1.1
황해북도	100.0	15.9	76.3	6.3	1.6
황해남도	100.0	16.4	74.2	7.6	1.8
평양시	100.0	13.9	68.0	14.9	3.3

○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50~75㎡의 주택에서 가장 많이 거주함

- 1인가구임에도 100㎡ 이상의 주거면적에 사는 비율이 1.8%이며, 76~100㎡에 사는 비율도 5.9%로 나타남

<표 41> 가구원수별 주거용 연면적 분포

(단위 : %)

구 분	계	50㎡ 미만	50~75㎡	76~100㎡	100㎡ 이상
1인	100.0	25.5	66.8	5.9	1.8
2인	100.0	20.0	71.6	6.7	1.6
3인	100.0	21.7	70.6	6.1	1.6
4인	100.0	18.4	72.7	7.1	1.8
5인	100.0	11.7	77.3	8.9	2.2
6인	100.0	8.1	78.8	10.5	2.7
7인	100.0	7.0	76.5	13.2	3.4
8인 이상	100.0	6.0	69.3	19.7	4.9

## 6. 방 수(2008)

전체 가구의 64.7%가 방 2개인 주택에 거주하며, 7인 이상의 가구도 방 2개인 주택에 65.5%가 거주함

- 방 2개 주택에 64.7% 가구가 거주하며, 방 1개인 가구의 비율은 도시가 농촌의 2배임
  - 2005년 남한의 경우 방 수 3개 거주 가구가 47.0%로 가장 많음

<표 42> 방수별 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1개	2개	3개	4개 이상
북한	전체	1,013,664 (17.2)	3,808,956 (64.7)	1,003,019 (17.0)	61,832 (1.1)
	도시	781,322 (21.8)	2,199,687 (61.5)	560,120 (15.6)	38,497 (1.1)
	농촌	232,342 (10.1)	1,609,269 (69.7)	442,899 (19.2)	23,335 (1.0)
남한 (2005년)		2,269,464 (14.3)	4,827,574 (30.4)	7,469,310 (47.0)	1,320,780 (8.3)

주 : 방 수에서 거실, 식사용 방은 제외

- 북한의 1인 가구는 방이 2개인 경우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4개 이상인 경우도 1.2%
  - \* 2005년 남한의 1인 가구는 50.0%가 방 1개에 거주
- 북한은 7인 이상의 가구도 방수 2개에 65.5%가 거주하며, 1개인 경우도 5.8% 나타남
  - \* 남한의 7인 이상의 가구는 거의 대다수(92.1%)가 방수 3개 이상임

<표 43> 1인 및 7인 이상 가구의 방수 구성

(단위 : 가구, %)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이상
1인	북한	99,166 (100)	25,556 (25.8)	59,280 (59.8)	13,172 (13.3)	1,158 (1.2)
	남한 (2005)	3,170,675 (100)	1,583,153 (50.0)	994,565 (31.4)	533,954 (16.8)	59,003 (1.9)
7인 이상	북한	142,589 (100)	8,302 (5.8)	93,416 (65.5)	37,998 (26.6)	2,873 (2.0)
	남한 (2005)	92,655 (100)	62 (0.1)	7,269 (7.8)	50,043 (54.0)	35,281 (38.1)

<표 44> 북한의 가구원수별 방수 구성

(단위 : %)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이상
1인	100.0	25.8	59.8	13.3	1.2
2인	100.0	20.7	63.2	15.2	1.0
3인	100.0	22.4	62.3	14.5	0.9
4인	100.0	19.0	63.7	16.3	1.0
5인	100.0	11.2	68.3	19.4	1.1
6인	100.0	7.2	69.8	21.7	1.3
7인	100.0	5.9	67.7	24.7	1.7
8인 이상	100.0	5.5	60.3	31.4	2.8

## 7. 수도형태 (2008)

가구의 85%는 주택 내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물 공급은 리/읍/동의 인민위원회에서 관리

- 주택 내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85%인데, 농촌 지역(78.0%)보다 도시 지역(89.5%)이 11.5%p 높게 나타남
  - 남한의 경우 '집안수도' 형태가 95.4%임
  - 북한의 경우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2.3%임

<표 45> 수도형태별 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집안수도	공동수도	쫄짱 (작두샘)	보호막 있는 우물	보호막 있는 샘물	못, 강 등 기타	
북한	전체	5,003,904 (85.0)	133,618 (2.3)	501,501 (8.5)	159,562 (2.7)	56,801 (1.0)	32,085 (0.5)
	도시	3,204,368 (89.5)	81,425 (2.3)	202,941 (5.7)	59,273 (1.7)	19,702 (0.6)	11,917 (0.3)
	농촌	1,799,536 (78.0)	52,193 (2.3)	298,560 (12.9)	100,289 (4.3)	37,099 (1.6)	20,168 (0.9)
남한 (2005년)	15,151,743 (95.4)			735,385 (4.6)			

주 : 남한의 수도형태(상수도, 마을상수도, 자가수도, 없음)에서 '없음'을 제외하고 '집안수도'로 구분하였음. '없음'의 경우 집안수도 이외의 기타로 처리(4.6%)

- 시도별 '집안수도' 분포를 보면, 평양시(93.3%)가 가장 높고 황해남도(78.4%)는 전체(85.0%)와 6.6%p 차이가 있음
  - 남한의 작두샘인 '졸짱'의 수도형태는 자강도(12.1%)가 가장 많이 이용
  - '보호막 있는 우물'의 경우에는 황해남도(8.5%)가 전체 평균(2.7%)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 못, 강 등 기타 형태는 황해남도(0.8%) 및 황해북도(0.8%)에서 많이 나타남

<표 46> 시도별 수도형태

(단위 : %)

구 분	계	집안수도	공동수도	졸짱 (작두샘)	보호막 있는 우물	보호막 있는 샘물	못, 강 등 기타
양강도	100.0	82.1	2.2	11.2	2.9	1.2	0.4
함경북도	100.0	84.5	1.5	10.7	1.9	1.0	0.5
함경남도	100.0	85.3	1.6	8.1	3.5	1.1	0.3
강원도	100.0	83.4	2.9	8.5	4.5	0.2	0.4
자강도	100.0	80.2	1.7	12.1	4.1	1.6	0.4
평안북도	100.0	84.2	1.5	11.5	0.9	1.2	0.7
평안남도	100.0	87.7	3.4	7.2	0.3	1.1	0.3
황해북도	100.0	80.5	3.5	9.8	4.1	1.3	0.8
황해남도	100.0	78.4	2.2	9.0	8.5	1.1	0.8
평양시	100.0	93.3	1.8	3.3	0.8	0.1	0.7

## 8. 화장실(2008)

전체 가구의 58.3%가 수세식 단독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6.9%가 공동화장실을 사용

- 전체 가구의 58.3%는 수세식 단독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 66.3%로 농촌(45.9%)보다 20.4%p 높게 나타남
- 전체 가구의 40.5%는 채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53.8%로 도시지역(32.0%)보다 21.8%p 높게 나타남
- 전체 가구의 6.9%가 화장실을 공동사용하며, 도시지역은 9.6%로 농촌지역(2.7%)보다 6.9%p 높게 나타남

○ 수세식 단독화장실 사용비율은 북한이 58.3%, 남한은 92.5%임

\* 남한은 '화장실 없음'에 해당하는 가구도 약 0.2% 있으나, 북한의 경우 해당 가구 수가 나타나 있지 않음

<표 47> 화장실 사용 유형

(단위 : 가구, %)

구 분		수세식		재래식	
		단독사용	공동사용	단독사용	공동사용
북한	전체	3,434,306 (58.3)	65,579 (1.1)	2,045,134 (34.7)	342,452 (5.8)
	도시	2,374,540 (66.3)	58,629 (1.6)	858,412 (24.0)	288,045 (8.0)
	농촌	1,059,766 (45.9)	6,950 (0.3)	1,186,722 (51.4)	54,407 (2.4)
남한 (2005년)		14,701,523 (92.5)	233,818 (1.5)	776,534 (4.9)	151,391 (1.0)

주 : 남한의 경우 화장실 없음(23,862 가구, 0.2%)도 조사되었으나 <표 48>에는 미포함

○ 지역별로 볼 때 북한의 수세식 단독사용 비율은 평양시(75.2%)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체 평균(58.3%) 이하임

- 재래식 단독사용의 경우엔 평양시(20.8%)가 두드러지게 낮음
- 공동사용은 수세식의 경우에는 함경남도(1.4%)가, 재래식의 경우에는 평안북도(8.6%)가 특히 높게 나타남

<표 48> 시도별 화장실 사용 유형

(단위 : %)

구 분	계	수세식		재래식	
		단독사용	공동사용	단독사용	공동사용
북한 전체	100.0	58.3	1.1	34.7	5.8
양강도	100.0	54.1	1.1	39.4	5.4
함경북도	100.0	54.8	1.2	35.6	8.4
함경남도	100.0	55.6	1.4	39.6	3.4
강원도	100.0	54.9	1.1	36.9	7.1
자강도	100.0	57.5	1.0	34.5	7.0
평안북도	100.0	57.4	0.8	33.2	8.6
평안남도	100.0	56.5	1.1	35.5	6.8
황해북도	100.0	54.4	1.3	40.1	4.3
황해남도	100.0	53.9	1.2	39.7	5.3
평양시	100.0	75.2	0.9	20.8	3.1

## 9. 난방형태(2008)

주된 난방연료는 석탄(47.1%)과 나무(45.1%)이며, 평양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역난방 이용

- 주된 난방연료는 석탄(47.1%)과 나무(45.1%)이며, 도시지역은 석탄(64.3%), 농촌지역은 나무(75.3%)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전기난방을 하는 가구는 0.7%로 매우 적으며, 중앙 및 지역난방도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없음

<표 49> 주된 난방형태

(단위 : 가구, %)

구 분		중앙 및 지역 난방	전기난방	전기난방 + 다른 난방	가정용 석탄난방	가정용 나무난방	기타
북한	전체	263,809 (4.5)	40,624 (0.7)	55,712 (0.9)	2,773,238 (47.1)	2,656,866 (45.1)	97,222 (1.7)
	도시	263,055 (7.3)	35,630 (1.0)	45,343 (1.3)	2,300,395 (64.3)	918,583 (25.7)	16,620 (0.5)
	농촌	754 (0.0)	4,994 (0.2)	10,369 (0.4)	472,843 (20.5)	1,738,283 (75.3)	80,602 (3.5)
남한 (2005년)		2,310,522 (14.5)	527,114 (3.3)	- -	213,548 (1.3)	63,819 (0.4)	73,068 (0.5)

주 : 남한의 난방형태 중 미포함된 유형 : 도시가스보일러(8,036,661가구, 50.6%), 기름보일러(4,083,504가구, 25.7%), 프로판보일러(578,892가구, 3.6%) 등

- 단독주택은 주로 나무(66.8%),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주로 석탄(각각 54.1%, 60.0%)을 난방연료로 사용
- 아파트의 경우 석탄난방(60.0%)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중앙 및 지역난방도 20.5%를 차지하여 나무난방(12.5%)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표 50> 주택의 종류별 난방형태

(단위 : %)

구 분	계	중앙 및 지역 난방	전기난방	전기난방 + 다른 난방	가정용 석탄난방	가정용 나무난방	기타
전체	100.0	4.5	0.7	0.9	47.1	45.1	1.7
단독주택	100.0	0.0	0.2	0.1	30.2	66.8	2.7
연립주택	100.0	0.1	0.3	0.2	54.1	44.2	1.1
아파트	100.0	20.5	2.3	3.9	60.0	12.5	0.7
기타	100.0	3.1	1.3	0.3	30.0	53.3	11.9

- 중앙 및 지역 난방은 평양시(32.2%)를 제외하면 거의 이용되지 않음
  - 석탄난방은 평안남도, 나무난방은 양강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표 51> 지역별 난방형태

(단위 : %)

지역	계	중앙 및 지역 난방	전기난방	다른난방	석탄	나무	기타
북한 전체	100.0	4.5	0.7	0.9	47.1	45.1	1.7
양강도	100.0	0.0	1.7	1.6	1.0	95.4	0.2
함경북도	100.0	0.1	0.3	4.0	39.3	55.5	0.8
함경남도	100.0	0.0	0.4	0.7	38.0	58.3	2.5
강원도	100.0	0.0	0.3	0.8	36.0	61.5	1.4
자강도	100.0	0.0	0.9	1.4	20.9	76.7	0.1
평안북도	100.0	0.0	0.2	0.4	49.2	45.2	4.9
평안남도	100.0	0.1	0.4	0.1	81.6	17.6	0.3
황해북도	100.0	0.0	0.1	0.4	41.7	55.9	1.9
황해남도	100.0	0.0	0.2	0.6	28.6	68.5	2.1
평양시	100.0	32.2	2.7	0.9	58.6	4.6	1.1

## 10. 취사연료(2008)

난방연료와 유사하게 취사연료도 석탄(46.1%)과 나무(46.9%)를 주로 사용하며, 평양시만 가스와 석유를 10%대 사용

- 주로 석탄(46.1%)과 나무(46.9%)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며, 석탄은 도시 지역(63.4%)에서, 나무는 농촌지역(76.9%)에서 주로 사용함
  - 전기(1.3%)와 석유(1.8%)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비율은 매우 낮음
- 북한의 도시지역에서 취사연료 사용 형태는 연료별 사용 비율측면에서 보면 1980년 남한의 전체 비율과 유사

<표 52> 주된 취사연료

(단위 : 가구, %)

구 분		전기	가스	석유	석탄	나무	기타
북한	전체	79,057 (1.3)	167,462 (2.8)	103,091 (1.8)	2,714,511 (46.1)	2,758,400 (46.9)	64,950 (1.1)
	도시	65,814 (1.8)	157,228 (4.4)	90,927 (2.5)	2,271,128 (63.4)	984,407 (27.5)	10,122 (0.3)
	농촌	13,243 (0.6)	10,234 (0.4)	12,164 (0.5)	443,383 (19.2)	1,773,993 (76.9)	54,828 (2.4)
남한 <sup>1), 2)</sup> (1980년)		22,640 0.3	482,910 6.1	200,619 2.5	5,238,919 65.7	1,794,113 22.5	230,000 2.9

주 : 1) 남한의 경우 취사연료에 대해 전수항목으로 '80, '85, '90년, 표본항목으로 '00년에 조사됨.  
응답항목이 유사한 '80년 자료 반영(전기, 가스, 유류, 연탄, 임산연료, 기타)

2) 남한의 취사연료 주요특징

(1) 가스비율 증가 : 6.1%('80) → 26.4%('85) → 97.6%('00 도시가스 및 프로판가스 포함)

(2) 연탄, 임산연료 비율 감소 : 88.2%('80) → 62.9%('85) → 0.4%('00)

○ 평양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석탄과 나무 이외의 취사연료 사용은 2.0% 내외로 북한의 취사연료는 주로 석탄과 나무에 의존

- 양강도는 나무이용이 96.5%로 매우 높은 반면, 전기이용도 2.2%를 보임
- 평안남도의 경우엔 나무보다 석탄 사용이 약 3.7배 높음
- 평양시의 경우 나무 사용비가 4.7%에 그치고, 가스·석유 사용비율이 각각 10%대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임

<표 53> 지역별 주된 취사연료

(단위 : %)

구 분	계	전기	가스	석유	석탄	나무	기타
양강도	100.0	2.2	0.1	0.0	1.0	96.5	0.2
함경북도	100.0	0.6	0.1	0.1	40.6	57.7	0.9
함경남도	100.0	0.6	0.1	0.0	38.3	59.1	1.9
강원도	100.0	0.6	0.1	0.0	36.0	62.2	1.0
자강도	100.0	1.4	0.1	0.1	22.1	76.3	0.1
평안북도	100.0	0.3	0.1	0.0	49.5	48.6	1.4
평안남도	100.0	0.4	0.2	0.1	77.8	21.0	0.4
황해북도	100.0	0.2	0.1	0.1	38.7	58.9	2.0
황해남도	100.0	0.2	0.1	0.1	28.6	69.0	2.0
평양시	100.0	6.4	19.8	12.2	56.3	4.7	0.5

## <자료출처>

- 김두섭. 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남북한의 비교." 『통일문제연구』 5(4): 202-235. 통일원.
- \_\_\_\_\_. 1995. "북한의 도시화와 인구분포: 남한과의 비교." 『한국인구학회지』 18(2): 70-97.
- 문호일. 2004. 『북한인구추계연구노트』,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 중앙통계국. 19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 \_\_\_\_\_.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 조선중앙통신사. 각 연도.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통계청. 1999. 『북한총인구 추계 1970~2030』. 통계청.
- \_\_\_\_\_. 2006a.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각 부문별)』. 통계청.
- \_\_\_\_\_. 2006b. 『장래인구추계 2005~2050』. 통계청.
- \_\_\_\_\_. 2010a. 한국통계포털(KOSIS). <http://kosis.kr/nsportal/index/index.jsp>.
- \_\_\_\_\_. 2010b.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통계청.
- \_\_\_\_\_. 2010c.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통계청.
- Eberstadt and Banister. 1992.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 UN. 2008.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참고 1> 북한 2008년 인구일제조사(인구센서스) 개요

### □ 북한 인구센서스 주요 내용

- 조사기간 : 2008. 10. 1. ~ 10. 15.(기준시점 : 10. 1일 0시 현재)
  - \* 1993년 1차 인구센서스 후 15년 만에 두 번째 센서스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조사(전 인구 전수조사)
  - \* 조사원수 : 약 3만 5천명(조사원 1명당 약 150~200가구 조사)
- 조사항목 : 53개 항목(인구 29개, 가구 14개, 사망관련 10개)
- 조사대상 : 북한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북한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 시설인구(군부대, 교도소 등)도 모두 조사되었음
- 조사결과 : 10개 분야 53개 결과표 제공('09.12월)

### □ 통계청 지원내용

- 북한 인구센서스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통계청)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서 제공 및 조사항목 선정 시 자문
    - \* 통계청에서 9개 항목을 요구하여 4개 항목(난방시설, 취사연료, 주택형태, 5년 전 거주지)이 최종 반영
  - 북한 센서스 담당자 교육('08.5월 북경) 실시
  - 사후조사 실시에 관한 교육 및 자료제공

## <참고 2> 북한의 인구정책과 출산율

### □ 제1차 출산장려정책(1970년대 전반 이전)

- 북한당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력 부족, 군병력 유지, 남북한 간 인구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1961년 11월에 열린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시작
- 인구증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실시
  - 쌍둥이 출산 가정에는 특별배급(백미 80kg 등)을, 그리고 삼쌍둥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완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
  - 다산모와 전쟁고아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
  - 임신부 우대 조치와 이혼 억제 등
- 인민보건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에 출산을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
  - 1976년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에서는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명시
-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국가가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
-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서 이 기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다소 상승 → 합계 출산율이 1966년 6.5명에서 1970년 7.0명으로 다소 증가

### □ 출산억제정책(1970년대 후반 ~ 1990년대 전반)

- 북한 당국은 공업화 정책 추진을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
- 북한당국은 1970년대 중엽부터 가족계획에 대해 관심
- 정책수단으로 3자녀 이하 출산을 권장하였으며 4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식량배급에 차등
  -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
- 1980년대에 출산억제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2자녀 이하의 출산을 권장

- 출산휴가 차등제를 실시하여 첫아이 출산의 경우에는 150일, 둘째아 출산 시에는 100일의 휴가를 주었으며, 셋째아 이상의 출산 시에는 출산 휴가를 전혀 주지 않았음
- 피임방법으로는 자궁내장치(IUD)를 보급
-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UN에 따르면 1975년 3.30명, 1980년 2.41명, 1980년대 후반 2.25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 □ 제2차 출산장려정책(1990년대 후반 이후)

-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출산기피와 영아사망률 증가로 북한의 출생률은 계속 감소
- 출산억제정책의 지속,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 배급체계 붕괴에 따른 여성의 가계유지 역할 증대 등으로 인하여 출산기피 현상이 확산
- 이에 북한당국은 향후 건설인력, 군인 가용자원 등의 부족을 우려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시 전환
  - 식량난 심화로 인한 여성들의 출산기피에 대응해 출산장려책으로 자궁 내장치 보급이 중단
  - 1993년 11월에는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낙태 금지령을 하달하여, 시술 의사에 대해서는 무보수 노동형을 부과
- 1995년에는 혼인연령을 남자는 26세로 여자는 24세로 하향 조정
- 1996년부터 다산 여성을 “모성영웅”으로 호칭하고, 직장 강연회 등을 통해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
  - 다산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모성영웅제도가 새로 도입
- 북한당국은 노동신문(1998. 5.) 등 매스컴을 동원하여 다산여성에 대한 ‘국가적 혜택’ 조치도 발표
  - 3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후휴직제(4-12개월)를 실시
- 식량난 이후 출산 및 양육, 가족 부양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성들이 독신을 선호하고, 결혼 후에도 출산·육아를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
-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악화되어 향후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참고표 1> 북한 당국의 인구정책 요약: 1960년 이후

시기	정책 내용
1960년대~ 70년대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정책 실시 : 해방이후</li> <li>-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배급(백미 80kg) 실시 선전</li> <li>- 삼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완전생활 보장 선언</li> <li>- 다산모 및 전쟁고아 3명 이상 양육 가정 표창</li> </ul>
197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억제정책 도입</li> <li>- 보건요원, 의료인, 여맹위원회를 활용하여 3자녀 낳기를 권장</li> <li>- 4자녀부터 식량배급 차등제 실시</li> <li>- 재래식 피임법 및 자궁내 피임장치 보급</li> <li>- 여자 혼인연령을 법적 22세 이상으로 상향(대졸자는 25세 이상)</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억제정책 강화</li> <li>- 보건요원, 의료인, 여맹위원회를 활용하여 1~2자녀 낳기를 권장</li> <li>- 출산휴가 차등제 실시 : 첫째아 150일, 둘째아 100일, 셋째아 이상 없음</li> <li>- 혼인연령(남자 28세, 여자 26세) 규제 강화</li> <li>- 4째 자녀부터 양곡을 차등배급</li> <li>- 자궁내 피임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li> <li>- 인공 임신중절 성행: 1983년에는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li> <li>- 혼인연령 조정: 남자 26세, 여자 24세(1995)</li> <li>- 미혼포함 인공임신중절 금지령, 시술의사 처벌(1996)</li> <li>- 다산여성 '모성영웅' 호칭 및 '따라 배우기 운동' 전개(1996)</li> <li>- '산아제한규정' 변경을 통한 출산장려(1996)</li> <li>- 출산장려정책 선전</li> <li>- 10자녀 이상 모에 표창(1998.9),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 개최(1998)</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출산 권장을 위해 다산 여성에게 혜택 부여</li> <li>- 임신 여성과 산후 1년까지의 산모와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식량 우선제공</li> <li>-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특별 보조금 지급(2005년 월 200원 지급)</li> <li>- 자녀가 3명일 경우 산후 3~12개월까지의 휴직제 실시</li> <li>- 4살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노력동원 면제</li> <li>-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배정 등</li> <li>- 다산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장려하기 위해 모성영웅제도 도입(2002)</li> </ul>

### <참고 3> 북한의 행정구역(2008. 10. 1. 현재)

행정구역	시 (구역·지구)	군
평양직할시(19구역 4군)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사동구역, 대성구역,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룡성구역, 삼석구역, 승호구역 <sup>1)</sup> , 력포구역, 락랑구역, 순안구역, 은정구역	중화군 <sup>1)</sup> , 강남군 <sup>1)</sup> , 강동군, 상원군 <sup>1)</sup>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평안남도 (1특급시 5시 19군 1구 2지구)	남포특급시 <sup>2)</sup> , 평성시, 안주시, 개천시, 덕천시, 순천시, 청남구, 운곡지구, 득장지구	대동군, 온천군, 증산군, 평원군, 문덕군, 성천군, 숙천군, 녕원군, 북창군, 맹산군, 양덕군, 회창군, 신양군, 대흥군, 은산군, 강서군, 천리마군, 대안군, 용강군
평안북도 (3시 22군)	정주시, 구성시, 신의주시	피현군, 룡천군, 염주군, 철산군, 동림군, 선천군, 광산군, 운전군, 박천군, 녕변군, 구장군, 향산군, 운산군, 태천군, 천마군, 의주군, 삭주군, 대관군, 창성군, 동창군, 벽동군, 신도군
자강도 (3시 15군)	강계시, 만포시, 희천시	장강군, 화평군, 량림군, 시중군, 자성군, 중강군, 위원군, 초산군, 우시군, 고평군, 송원군, 성간군, 전천군, 동신군, 룡림군
양강도 (1시 11군)	혜산시	김정숙군, 보천군, 삼지연군, 백암군, 갑산군, 풍서군, 김형권군, 김형직군, 삼수군, 운흥군, 대흥단군
황해남도 (1시 19군)	해주시	벽성군, 강령군, 웅진군, 태탄군, 장연군, 룡연군, 삼천군, 송화군, 과일군, 은률군, 은천군,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 신원군, 봉천군,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황해북도 (1특급시 2시 16군)	개성특급시 <sup>2)</sup> , 사리원시, 송림시	황주군, 연탄군, 봉산군, 은파군, 린산군, 서흥군, 수안군, 연산군, 신평군, 곡산군, 신계군, 평산군, 금천군, 토산군, 개풍군, 장풍군
강원도(2시 15군)	원산시, 문천시	천내군, 안변군, 고산군,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회양군, 세포군, 평강군, 철원군, 이천군, 판교군, 법동군
함경남도(3시 7구역 1구 1지구 15군)	함흥시, 신포시, 단천시, 수동구, 금호지구	함주군, 락원군, 정평군, 금야군, 고원군, 요덕군, 장진군, 부전군, 영광군, 신흥군, 흥원군, 북청군, 덕성군, 리원군, 허천군
함경북도(1특급시 3시 7구역 12군)	나선특급시 <sup>2)</sup> , 청진시(청암구역,포항구역, 신암구역,수남구역, 송평구역, 나남구역, 부윤구역), 김책시, 회령시	무산군, 경성군, 길주군, 화대군, 명천군, 경흥군, 어랑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명간군, 부령군

주 : 1) 2011년 3월 현재 평양시에서 황해북도로 개편

2) 2011년 3월 현재 남포특급시→남포특별시, 나선특급시→나선특별시, 개성특급시→개성시로 변경

## <참고 4> 북한의 교육제도

- 1950년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학교와 초급중학교를 포함하는 7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 1967년에는 의무교육 연한이 9년으로 연장
- 유치원 1년, 소학교와 중학교 10년을 포함하는 11년의 현행 의무교육 제도는 1975년부터 실시
- 1990년대 초반의 의무교육은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구분
  - 유치원은 2년이지만, 2년차 상급유치원만 의무교육
  - 학생들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중학교나 음악, 미술, 외국어 등을 전공하는 특수 중학교에 입학
-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대학교, 사범대학(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교사 양성 기관), 첨단기술대학(2-3년 과정), 의과대학(6년), 특수대학(과학기술, 미술, 음악, 외국어 등), 군사학교 및 사관학교로 구성
- 김일성대학은 1946년 10월에 설립된 북한의 최초의 종합대학이며, 컴퓨터 과학에 주력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실무급 외교관이나 무역업무 종사자를 교육하는 평양외국어대학,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는 김형직사범대학 등이 있음

<참고 그림1> 북한의 현행 학제

